

POLICY
iSSUE
REPORT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방안연구

연구진

이제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 연구 위원

김현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Contents

I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의 필요성	
	1. 필요성	04
	2. 인구이동 분석의 프레임	04
II	강원도 인구변화 현황	
	1. 강원도 인구 현황 및 추이	07
	2.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	10
III	강원도 인구이동 특성	
	1. 국내인구이동 현황	14
	2. 강원도 인구이동	15
IV	강원도 인구정책 대응의 함의 및 시사점	
	1. 기초 및 접근	43
	2. 전략의 중점	44
	3. 주요 시책	45
	참고문헌	53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의 필요성

1. 필요성

- 강원도는 지난 20년 동안('01년~'20년) 최소 1,503,806명(2007년)에서 최대 1,552,407명(2001년) 사이에서 인구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시계열적으로 보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1,503,80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현재 154만 명 수준을 유지
- 강원도 내 18개 시·군별로 인구 증감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분석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 및 18개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과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강원도 인구정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2. 인구이동 분석의 프레임

인구이동 분석의 목적 및 단위

- 인구이동 유형은 광역시·도 간 이동, 강원도 내 시·군 간 이동으로 구분하고, 전입신고서의 전입(전출)사유를 분석

- 강원도 인구변화에 대한 분석 기간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개 년도를 대상으로 하며, 인구이동 분석은 2020년 자료를 활용
- 강원도의 인구이동 분석은 통계청에서 배포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
 - 마이크로데이터는 시·군·구별 이동자수, 전입지-전출지별 이동자수, 성·연령별 이동자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원도 18개 시·군 단위의 인구이동 파악이 가능
 - 또한 인구이동과 세대이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항목은 전입지 및 전출지의 시·도, 시·군·구, 동·읍·면, 전입일자, 전입사유, 나이, 성별, 이동자 수로 구성

• 표 1-1 | 인구이동 분석 목적 및 단위 •

구분	내용
분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시·군 - 타 시·도 이동량 및 유출 사유 분석 • 강원도 내 시·군 간 이동량 및 유출 사유 분석
분석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시·군·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 2001년~2020년 • 인구이동 사유: 2020년
인구이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간 • 18개 시·군 간
분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인구이동의 사유 구분

- 마이크로데이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등 7가지로 구분되며, 전출지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전입사유를 전출사유로 분석 가능
- 전입사유는 가구원 중 전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세대원을 기준으로 주된 사유 1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함께 이동한 모든 세대원도 동일한 사유로 집계되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대주만을 추출하여 전출사유를 분석함

• 표 1-2 | 전입신고서 상 전입(전출)사유 •

전입(전출)사유	내용
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구직과 관련하여 이사한 경우 • 직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여 이사한 경우 • 사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이혼, 별거, 사별로 이사한 경우 • 분가 또는 독립을 위해 이사한 경우 • 가족과 가까이 또는 같이 살기 위해 이사한 경우 등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전세, 월세 등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한 경우 • 주택규모 변경, 집세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이사한 경우 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학, 학업 때문에 이사한 경우 • 자녀교육 때문에 이사한 경우 등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역 근처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 문화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한 경우 등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요양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 더 나은 주거환경(신선한 공기, 오염지역 탈피)을 위해서 이사한 경우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에 열거한 요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자료 : 통계청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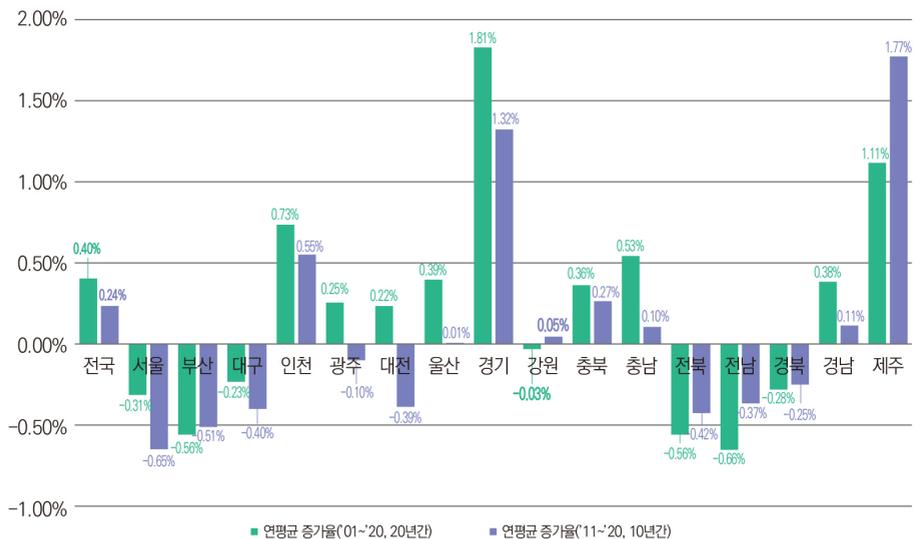
강원도 인구변화 현황

1. 강원도 인구 현황 및 추이

전국 시·도별 총인구 변화

- 국내 총인구는 2001년 48,021,543명에서 2020년 51,829,023명으로 지난 20년 동안 ('01년~'20년) 매년 약 0.4%씩 증가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매년 0.24%씩 증가하여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둔화
- 강원도의 인구는 2001년 1,552,407명에서 2020년 1,542,840명으로 20년간 연평균 0.03%씩 감소해 왔으나 최근 10년 동안('11~'20)에는 매년 0.05%씩 증가

• 그림 2-1 | 시도별 인구증감률 •



- 2020년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강원도와 인구 규모가 유사한 광주광역시(1,450,062명), 대전광역시(1,463,882명), 충청북도(1,600,837명)는 지난 20년 동안 매년 0.25%, 0.22%, 0.36%씩 지속적으로 증가
- 최근 10년 동안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매년 0.10%와 0.39%씩 감소하였고, 충청북도는 0.27%씩 증가

• 표 2-1 | 시도별 인구변화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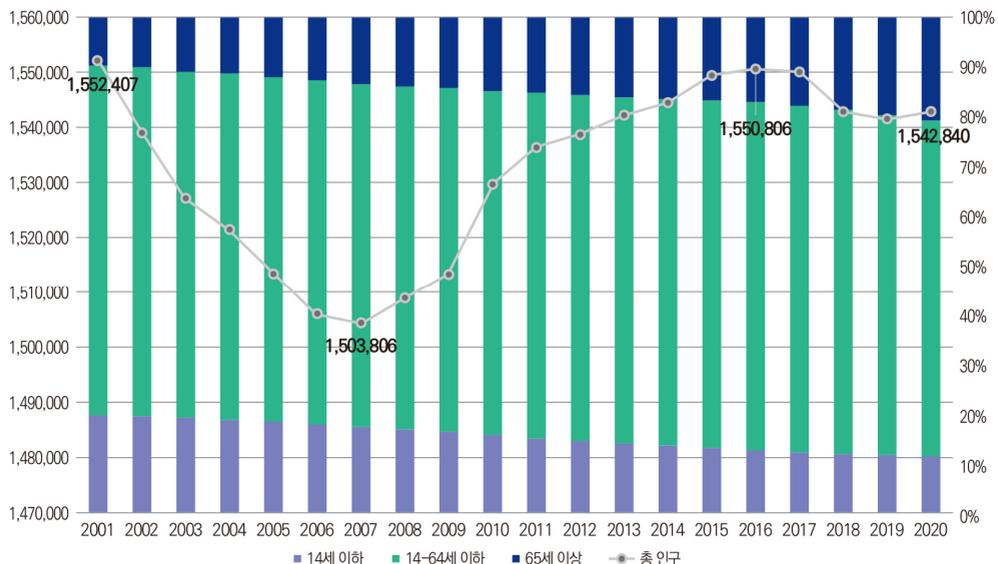
시도	2001년	2020년	연평균 변화율	
			20년간	10년간
강원도	1,552,407	1,542,840	-0.03%	0.05%
서울특별시	10,263,336	9,668,465	-0.31%	-0.65%
부산광역시	3,770,536	3,391,946	-0.56%	-0.51%
대구광역시	2,525,109	2,418,346	-0.23%	-0.40%
인천광역시	2,564,598	2,942,828	0.73%	0.55%
광주광역시	1,383,765	1,450,062	0.25%	-0.10%
대전광역시	1,403,164	1,463,882	0.22%	-0.39%
울산광역시	1,055,618	1,136,017	0.39%	0.01%
세종	-	355,831	-	13.58% ¹⁾
경기도	9,544,496	13,427,014	1.81%	1.32%
충청북도	1,496,520	1,600,837	0.36%	0.27%
충청남도	1,918,137	2,121,029	0.53%	0.10%
전라북도	2,006,454	1,804,104	-0.56%	-0.42%
전라남도	2,099,308	1,851,549	-0.66%	-0.37%
경상북도	2,784,704	2,639,422	-0.28%	-0.25%
경상남도	3,106,502	3,340,216	0.38%	0.11%
제주	546,889	674,635	1.11%	1.77%
전국	48,021,543	51,829,023	0.40%	0.24%

주 : 1)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 7. 1. 신설되어 9년간 인구변화율을 산정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각 연도

강원도 총인구 및 인구구조 변화

- 강원도 총인구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7년에 150만 3,806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증가하여 2016년에 지난 20년간 최대치인 155만 806명을 기록하였고, 2020년 현재 154만 명 수준을 유지
 - 이는 원주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원주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청소재지인 춘천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01년 155만 2,407명에서 2020년 현재 154만 2,840명으로 매년 평균 0.03%씩 감소
 - 지난 20년 동안 인구 최저치인 2007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인구변화율을 보면, 2001년에서 2007년까지 매년 평균 0.53%씩 감소하였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0.2%씩 매년 증가
- 인구구조변화에 있어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비중은 감소('01년 19%에서 '20년 11%)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01년 10%에서 '20년 21%)

• 그림 2-2 | 강원도 인구변화 •



2.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

18개 시·군별 인구변화

-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춘천시와 원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은 인구감소 추세에 있음
- 지난 20년 동안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지역은 춘천시와 원주시이며, 횡성군, 화천군, 양구군은 2007년 이후 성장추세에 있음
 - 원주시는 2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1.44%로 가장 높은 지역이며, 춘천시(0.63%), 횡성군(0.11%) 이상 3 지역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횡성군은 귀농·귀촌인에 의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천군과 양구군은 부사관 등 군인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로 판단됨

• 그림 2-3 |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01~'20) •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20년 간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5% 미만인 지역은 화천군(-0.02%), 양구군(-1.33%), 인제군(-0.23%), 홍천군(-0.35%), 양양군(-0.40%), 강릉시(-0.44%), 속초시(-0.46%) 이상 7개 지역임
- 연평균 인구변화율이 -0.5%~-1.0%인 지역은 평창군(-0.57%), 동해시(-0.70%), 철원군(-0.80%) 이상 3개 시·군이며, -1.0%를 초과한 지역은 삼척시(-1.05%), 고성군(-1.35%), 태백시(-1.43%), 정선군(-1.49%), 영월군(-1.56%)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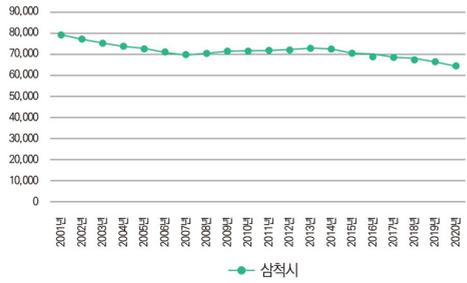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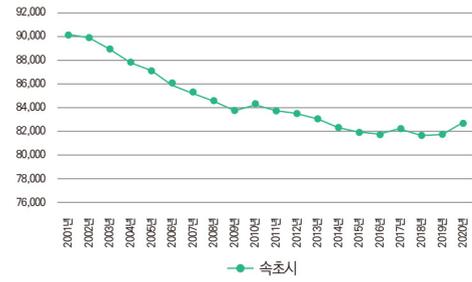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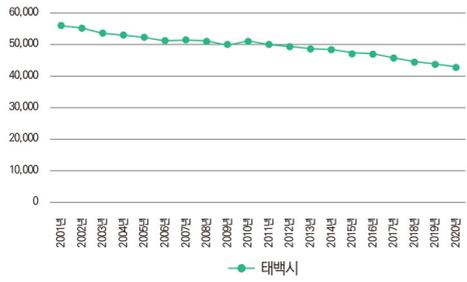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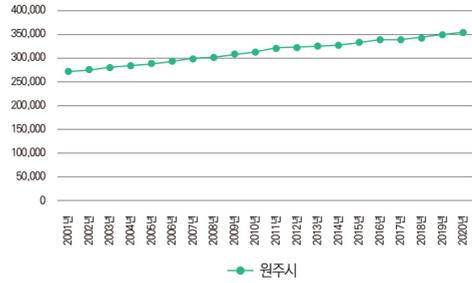
• 표 2-2 |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0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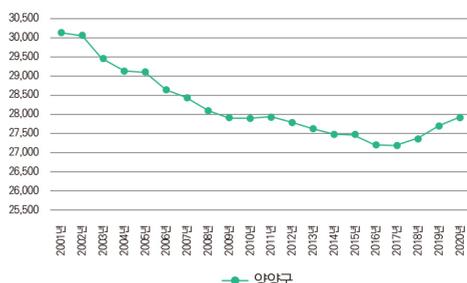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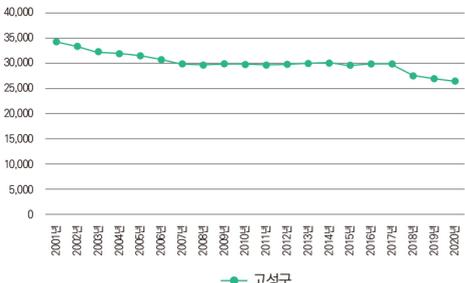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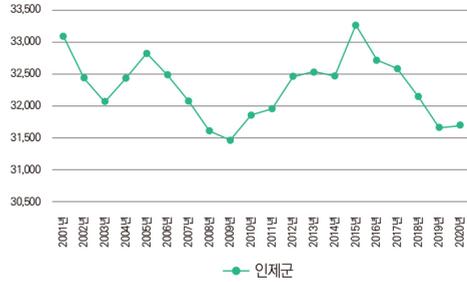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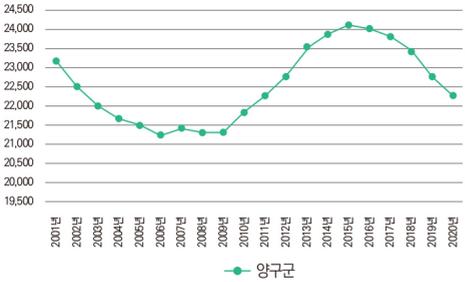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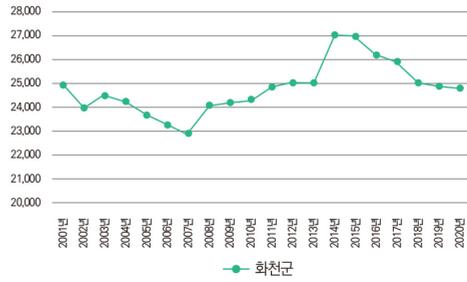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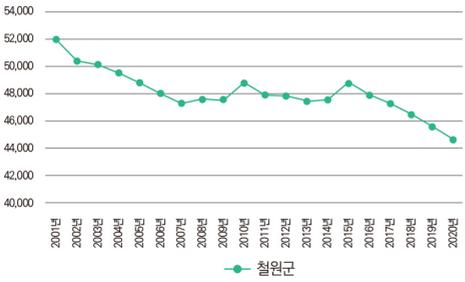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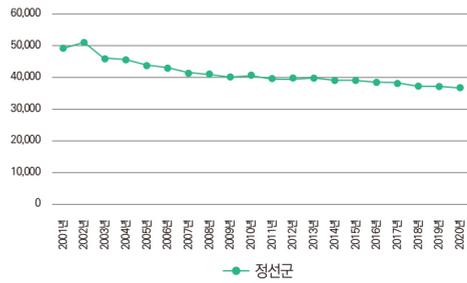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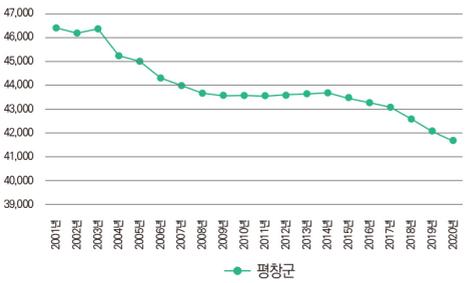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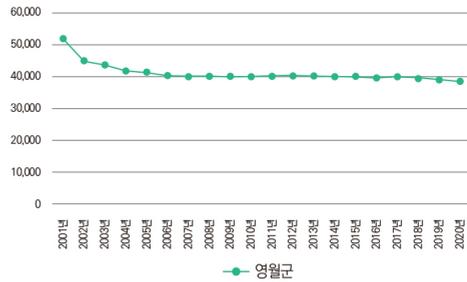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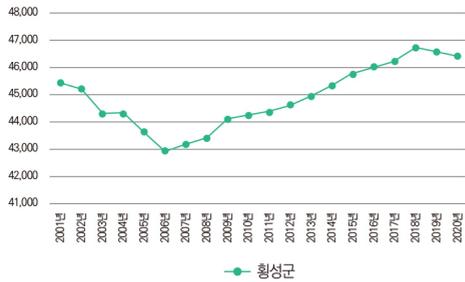
(단위 : 명, %)

시·군	2001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연평균 변화율		
						'01~'20	'01~'07	'08~'20
강원도	1,552,407	1,513,110	1,529,818	1,549,507	1,542,840	-0.03%	-0.53%	0.20%
춘천시	251,142	254,999	269,950	277,997	282,765	0.63%	0.46%	0.70%
원주시	274,266	288,454	314,678	332,995	354,376	1.36%	1.44%	1.32%
강릉시	231,943	224,391	218,503	214,560	213,321	-0.44%	-0.84%	-0.25%
동해시	103,570	99,230	95,236	93,895	90,593	-0.70%	-1.15%	-0.50%
태백시	56,193	52,463	50,864	47,501	42,719	-1.43%	-1.45%	-1.43%
속초시	90,231	87,124	84,302	81,992	82,665	-0.46%	-0.92%	-0.25%
삼척시	79,770	73,134	72,046	70,839	65,243	-1.05%	-1.97%	-0.63%
홍천군	74,019	70,811	69,893	70,336	69,242	-0.35%	-0.89%	-0.10%
횡성군	45,496	43,678	44,254	45,777	46,472	0.11%	-0.87%	0.57%
영월군	52,101	41,538	40,407	40,216	38,662	-1.56%	-4.19%	-0.32%
평창군	46,478	45,033	43,622	43,500	41,681	-0.57%	-0.91%	-0.42%
정선군	49,048	44,203	41,045	39,197	36,870	-1.49%	-2.63%	-0.96%
철원군	52,072	48,933	48,928	48,799	44,699	-0.80%	-1.55%	-0.45%
화천군	24,965	23,732	24,364	27,020	24,857	-0.02%	-1.40%	0.62%
양구군	23,198	21,480	21,843	24,089	22,278	-0.21%	-1.33%	0.31%
인제군	33,092	32,811	31,842	33,255	31,694	-0.23%	-0.52%	-0.09%
고성군	34,643	31,964	30,112	30,060	26,757	-1.35%	-2.16%	-0.97%
양양군	30,180	29,132	27,929	27,479	27,946	-0.40%	-0.97%	-0.14%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

• 그림 2-4 | 강원도 시·군별 인구변화('01~'20)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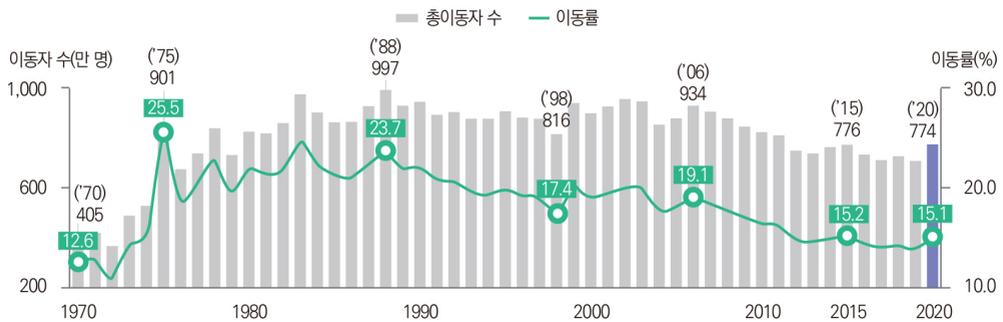
강원도 인구이동 특성

1. 국내인구이동 현황

2020년 기준 전국 이동자 수는 773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8.9%(63만 1천 명) 증가

- 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5.1%로 전년대비 1.2%p 증가하였고, 동일 시·도 내 이동률은 10.1%, 시·도 간 이동률은 4.9%로 전년 대비 각각 0.9%p, 0.3%p 증가
- 연령별 이동률은 20대(25.5%), 30대(23.2%)가 높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낮으며, 전년대비 전 연령층에서 이동률이 증가

• 그림 3-1 | 총이동자 수 및 이동률 추이(1970~2020) •



출처 : 통계청,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2. 강원도 인구이동

1) 인구증감 변화

- 인구의 증감은 출생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증감과 전입과 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으로 구분됨
- 강원도 인구의 자연적 증감은 지난 20년 동안('01년~'20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며, 2014년을 기점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적 증감은 자연적 증감과 반대로 2007년까지 매년 순유출되었으나,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순유입으로 전환(2018년을 제외)
- 사회적 인구이동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함에도 인구증가 폭이 낮은 것은 자연적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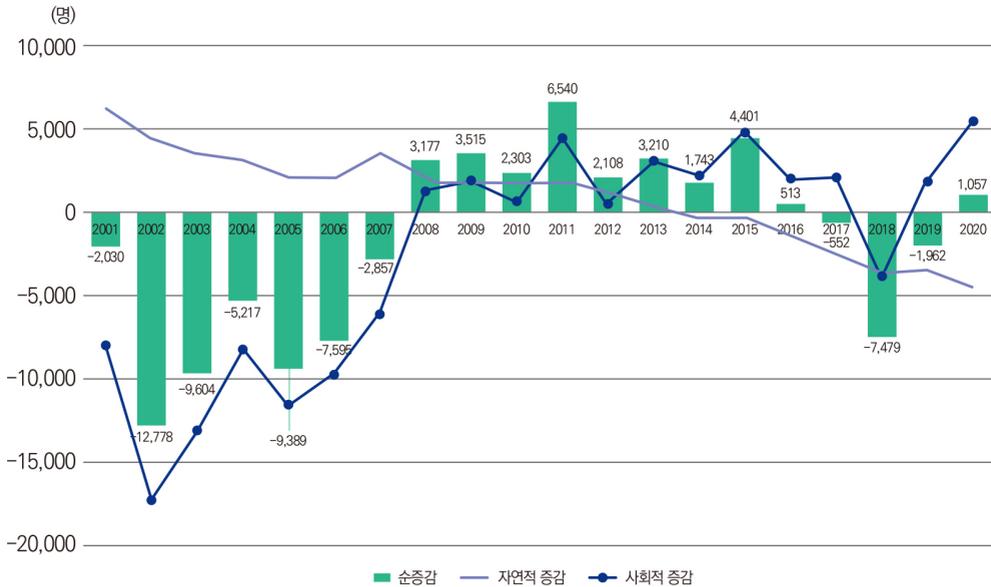
• 표 3-1 | 강원도 인구증감 변화('01~'20) •

(단위 :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자연적 증감	6,083	4,403	3,459	3,125	2,084	1,965	3,289	1,867	1,697	1,748	1,887
사회적 증감	-8,113	-17,181	-13,063	-8,342	-11,473	-9,560	-6,146	1,310	1,818	555	4,653
순증감	-2,030	-12,778	-9,604	-5,217	-9,389	-7,595	-2,857	3,177	3,515	2,303	6,54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자연적 증감	1,396	224	-342	-372	-1,379	-2,587	-3,625	-3,623	-4,400	16,899	
사회적 증감	712	2,986	2,085	4,773	1,892	2,035	-3,854	1,661	5,457	-47,795	
순증감	2,108	3,210	1,743	4,401	513	-552	-7,479	-1,962	1,057	-30,896	

자료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 그림 3-2 | 강원도 인구증감 변화('01~'20) •



2) 인구이동량

- 인구이동은 시·도 간 전입과 전출, 도내 시·군 간 이동, 동일 시·군 내 이동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강원도 내 이동 중에서 동일 시·군에서의 이동은 2017년까지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으며, 시·군 간 전입과 전출은 분석기간 동안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시·도 간 전입과 전출은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 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순이동은 2018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양(+)의 값을 가짐
- 분석기간 동안 강원도 내 이동에서 동일 시·군 내 이동이 전체 이동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이동의 범위가 기존 생활권을 고려한 인접 지역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전체 이동량에서 시·도 간 이동(전입)이 27.4%, 강원도 내 이동(동일 시·군, 시·군 간)이 72.6%를 차지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강원도 인구이동 총량은 연평균 29만 7,302 명으로 2017년을 저점으로 2020년 현재 30만 3,85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

• 표 3-2 | 강원도 인구이동 변화('14~'20) •

(단위 : 명)

년도	총이동 ¹⁾	총전입 ²⁾	총전출 ³⁾	강원도 내 이동			시·도 간 이동		순이동
				동일 시·군 내 이동	시·군 간 이동 전입	시·군 간 이동 전출	전입	전출	
2014	309,600	121,425	119,340	188,175	38,306	38,306	83,119	81,034	2,085
2015	303,863	125,987	121,214	177,876	38,880	38,880	87,107	82,334	4,773
2016	299,400	121,664	119,772	177,736	39,101	39,101	82,563	80,671	1,892
2017	282,762	119,410	117,375	163,352	38,720	38,720	80,690	78,655	2,035
2018	288,738	113,380	117,234	175,358	37,068	37,068	76,312	80,166	-3,854
2019	292,895	112,947	111,286	179,948	35,002	35,002	77,945	76,284	1,661
2020	303,855	117,545	112,088	186,310	35,254	35,254	82,291	76,834	5,457
합계	2,081,113	832,358	818,309	1,248,755	262,331	262,331	570,027	555,978	14,049
연평균	297,302	297,302	295,295	178,394	37,476	37,476	81,432	79,425	
비율	100.0%			60.0%	12.6%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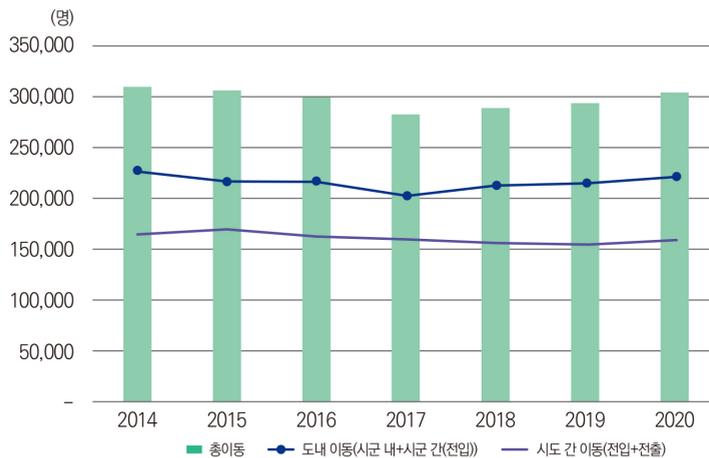
주 : 1) 총이동량은 강원도 내 시·군 내 이동, 시·군 간 이동(전입), 시·도 간 이동(전입)의 합

2) 총전입량은 강원도 내 시·군 간 이동(전입), 시·도 간 이동(전입)의 합

3) 총전출량은 강원도 내 시·군 간 이동(전출), 시·도 간 이동(전출)의 합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각 년도), 국내인구이동통계

• 그림 3-3 | 강원도 총인구이동량(시·도 간, 강원도 내) 변화 •



3) 전입·전출 분석

시·도 간 인구이동

- 2020년 타 시·도에서 총 8만 2,291명이 강원도로 전입하였고, 7만 6,834명이 전출하여 5,457명이 순유입됨
- 경기도(2만 9,381명), 서울시(2만 701명), 인천시(5,544명), 충청북도(4,615명) 순으로 수도권에서 전체 67.6%인 5만 5,626명이 강원도로 전입
-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지역 역시 수도권으로 경기도(2만 8,504명), 서울시(2만 48명), 인천시(4,353명), 충청북도(4,217명) 순이며, 수도권에서 전체 순유입의 49.8%인 2,721명의 순유입 발생
 - 대전, 세종,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순유입 발생
- 세종(154명), 대전(127명), 충남(106명) 순으로 총 387명의 순유출 발생

• 표 3-3 | 강원도와 타 시·도 간 인구이동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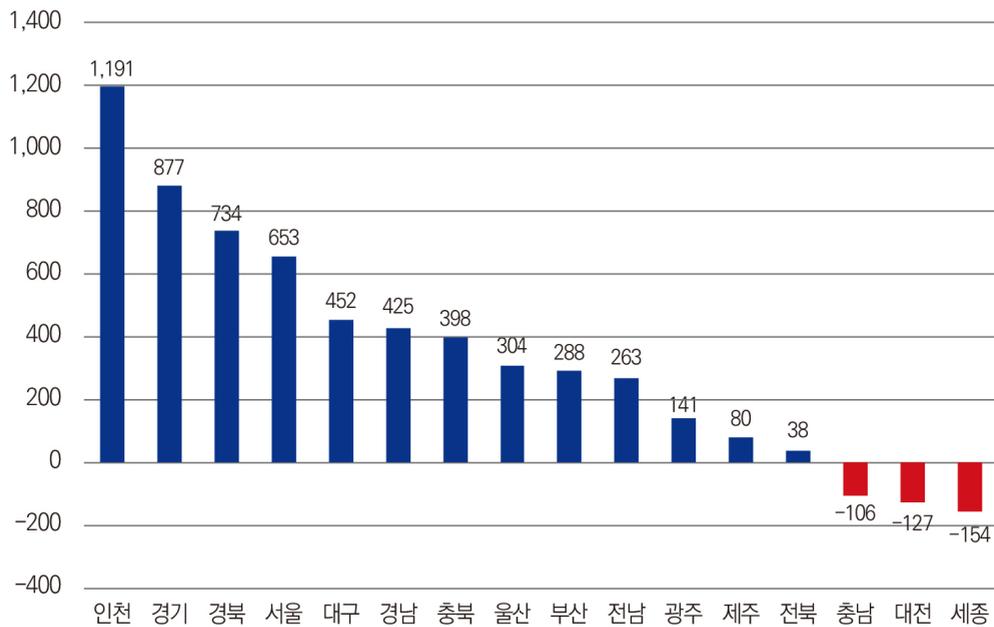
(단위 : 명)

전출·전입지	강원도 전입자 수	강원도 전출자 수	순이동
서울특별시	20,701(2)	20,048(2)	653(4)
부산광역시	2,102(9)	1,814(9)	288(9)
대구광역시	1,947(10)	1,495(10)	452(5)
인천광역시	5,544(3)	4,353(3)	1,191(1)
광주광역시	826(15)	685(16)	141(11)
대전광역시	2,217(8)	2,344(7)	-127(15)
울산광역시	992(13)	688(15)	304(8)
세종특별자치시	616(16)	770(14)	-154(16)
경기도	29,381(1)	28,504(1)	877(2)
충청북도	4,615(4)	4,217(4)	398(7)
충청남도	3,193(6)	3,299(5)	-106(14)

전출·전입지	강원도 전입자 수	강원도 전출자 수	순이동
전라북도	1,319(12)	1,281(12)	38(13)
전라남도	1,576(11)	1,313(11)	263(10)
경상북도	3,692(5)	2,958(6)	734(3)
경상남도	2,693(7)	2,268(8)	425(6)
제주특별자치도	877(14)	797(13)	80(12)
합계	82,291	76,834	5,457

주 : 괄호()안 숫자는 이동량 순위임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4 | 시·도 간 순이동자(전입-전출) •



시·군별 시도 간 인구이동

- 18개 시·군 중 타 시·도 간 이동량(전입·전출)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많고, 원주와 영월의 경우 중복이 많음

• 표 3-4 | 시·군별 시도 간 전입·전출 현황 ① •

(단위 : 명)

전출· 전입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전입자	전출자	전입자	전출자	전입자	전출자	전입자	전출자	전입자	전출자	전입자	전출자
서울	3,997	4,059	4,813	4,517	2,566	2,695	703	819	276	452	1,437	1,130
부산	254	168	476	381	292	245	221	250	58	61	101	115
대구	213	169	497	354	253	179	138	93	72	78	63	67
인천	761	606	1,226	854	686	604	273	249	108	117	280	221
광주	116	98	243	170	92	71	24	42	14	11	53	41
대전	320	317	500	509	206	233	81	136	23	58	123	120
울산	94	69	185	118	135	99	123	94	41	30	56	30
세종	87	137	165	176	74	78	30	38	11	17	39	50
경기	4,793	4,779	7,327	6,388	3,155	3,284	1,050	1,128	425	602	1,731	1,441
충북	399	389	1,807	1,339	389	359	148	132	101	115	151	121
충남	430	445	690	643	366	336	262	253	53	79	199	195
전북	205	195	321	276	111	121	78	50	15	19	82	74
전남	202	182	297	224	159	120	102	88	21	26	95	75
경북	417	335	829	601	426	339	357	296	192	213	161	138
경남	316	234	512	388	354	278	459	467	48	58	139	114
제주	141	139	214	207	122	99	64	43	25	33	64	72
합계	12,745	12,321	20,102	17,145	9,386	9,140	4,113	4,178	1,483	1,969	4,774	4,004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표 3-5 | 시·군별 시·도 간 전입·전출 현황 ② •

(단위 : 명)

전출· 전입지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전입자	전출자										
서울	565	776	1,197	919	709	612	477	477	715	618	382	370
부산	122	143	97	55	59	38	47	41	42	32	38	34
대구	103	105	101	52	27	32	48	47	47	31	54	49
인천	245	277	367	229	271	151	209	161	205	146	171	115
광주	18	22	48	36	8	16	9	13	14	27	12	10
대전	64	99	144	123	53	49	43	41	48	59	38	51
울산	103	76	32	15	25	21	20	24	18	11	44	26
세종	13	32	29	46	20	13	18	14	11	15	6	16
경기	825	1,178	1,796	1,455	1,237	930	878	820	989	859	566	536
충북	134	144	141	111	135	112	517	653	113	148	122	148
충남	107	128	177	165	100	76	76	79	98	90	66	96
전북	25	35	71	62	24	27	38	30	40	36	19	27
전남	47	55	103	64	34	15	24	27	27	32	24	22
경북	285	268	133	79	71	61	91	81	94	65	115	98
경남	156	166	127	80	35	28	59	47	50	46	54	51
제주	26	16	31	36	27	17	16	22	25	23	23	11
합계	2,838	3,520	4,594	3,527	2,835	2,198	2,570	2,577	2,536	2,238	1,734	1,660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표 3-6 | 시·군별 시·도 간 전입·전출 현황 ③ •

(단위 : 명)

전출· 전입지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전입자	전출자										
서울	581	702	440	371	291	310	559	515	393	306	600	400
부산	51	66	52	37	43	38	54	36	68	45	27	29
대구	65	52	73	43	51	30	67	56	32	39	43	19
인천	136	138	147	114	95	106	161	128	87	77	116	60
광주	28	23	48	29	29	26	46	33	9	10	15	7
대전	113	134	121	123	77	85	167	120	46	52	50	35
울산	24	25	18	5	12	11	24	13	22	9	16	12
세종	24	20	19	32	22	34	31	30	4	10	13	12
경기	1,207	1,722	766	682	488	729	902	914	496	536	750	521
충북	81	102	93	61	71	83	99	107	46	45	68	48
충남	117	146	108	150	82	121	128	164	52	70	82	63
전북	56	91	63	56	42	49	75	74	15	31	39	28
전남	108	85	96	81	49	47	114	85	41	47	33	38
경북	92	89	96	56	62	51	120	75	80	68	71	45
경남	71	85	91	48	55	30	80	66	53	54	34	28
제주	16	9	18	15	10	14	11	17	16	8	28	16
합계	2,770	3,489	2,249	1,903	1,479	1,764	2,638	2,433	1,460	1,407	1,985	1,361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순유입은 단연 원주(2,957명)가 많고 다음으로 홍천(1,067명), 속초(770명), 양양(624명) 순이며, 철원(719명), 삼척(682명), 태백(486명) 등이 순유출이 많음

• 표 3-7 | 18개 시·군별 시도 간 순이동자 수 ① •

(단위 : 명)

전출·전입지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서울특별시	-62	296	-129	-116	-176	307	-211	278	97
부산광역시	86	95	47	-29	-3	-14	-21	42	21
대구광역시	44	143	74	45	-6	-4	-2	49	-5
인천광역시	155	372	82	24	-9	59	-32	138	120
광주광역시	18	73	21	-18	3	12	-4	12	-8
대전광역시	3	-9	-27	-55	-35	3	-35	21	4
울산광역시	25	67	36	29	11	26	27	17	4
세종특별자치시	-50	-11	-4	-8	-6	-11	-19	-17	7
경기도	14	939	-129	-78	-177	290	-353	341	307
충청북도	10	468	30	16	-14	30	-10	30	23
충청남도	-15	47	30	9	-26	4	-21	12	24
전라북도	10	45	-10	28	-4	8	-10	9	-3
전라남도	20	73	39	14	-5	20	-8	39	19
경상북도	82	228	87	61	-21	23	17	54	10
경상남도	82	124	76	-8	-10	25	-10	47	7
제주특별자치도	2	7	23	21	-8	-8	10	-5	10
합계	424	2,957	246	-65	-486	770	-682	1,067	637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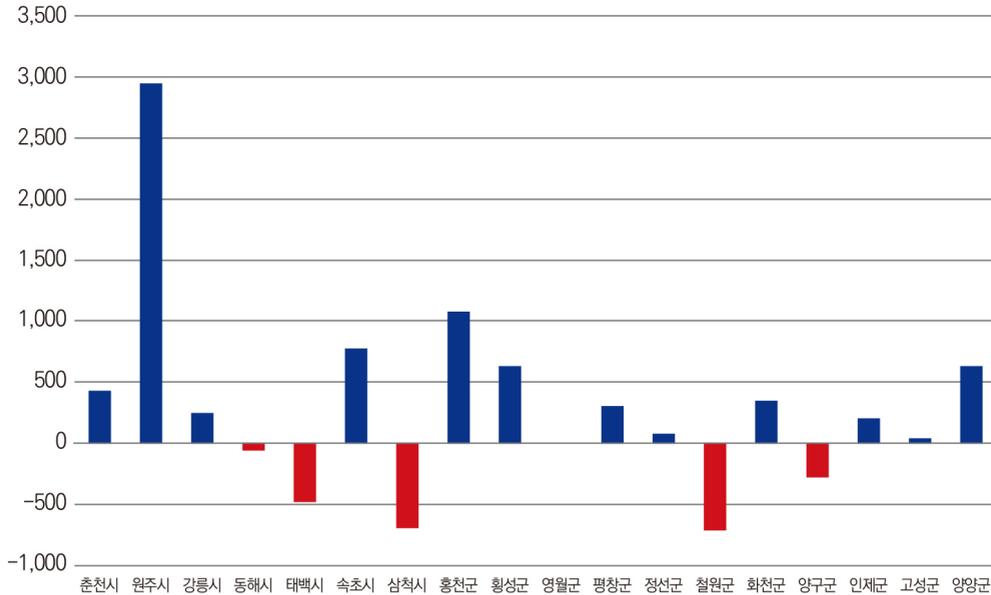
• 표 3-8 | 18개 시·군별 시도 간 순이동자 수 ② •

(단위 : 명)

전출·전입지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서울특별시	0	97	12	-121	69	-19	44	87	200
부산광역시	6	10	4	-15	15	5	18	23	-2
대구광역시	1	16	5	13	30	21	11	-7	24
인천광역시	48	59	56	-2	33	-11	33	10	56
광주광역시	-4	-13	2	5	19	3	13	-1	8
대전광역시	2	-11	-13	-21	-2	-8	47	-6	15
울산광역시	-4	7	18	-1	13	1	11	13	4
세종특별자치시	4	-4	-10	4	-13	-12	1	-6	1
경기도	58	130	30	-515	84	-241	-12	-40	229
충청북도	-136	-35	-26	-21	32	-12	-8	1	20
충청남도	-3	8	-30	-29	-42	-39	-36	-18	19
전라북도	8	4	-8	-35	7	-7	1	-16	11
전라남도	-3	-5	2	23	15	2	29	-6	-5
경상북도	10	29	17	3	40	11	45	12	26
경상남도	12	4	3	-14	43	25	14	-1	6
제주특별자치도	-6	2	12	7	3	-4	-6	8	12
합계	-7	298	74	-719	346	-285	205	53	624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5 | 시·군별 시도 간 순이동 현황 •



강원도 내 시·군 간 인구이동

- (전입·전출 공통) 전입·전출지의 인근 중심도시로 이동량이 많음
- (전출) 춘천은 원주(1,152명), 홍천(698명), 화천(539명) 순이며, 원주는 횡성(967명), 춘천(910명), 강릉(675명) 순, 강릉은 원주(948명), 동해(586명), 춘천(548명) 순임
 - 총 전출자가 2,000명 이상인 지역은 원주(4,728명), 춘천(4,545명), 강릉(3,833명), 속초(2,645명), 삼척(2,443명), 동해(2,164명)에서 발생
- (전입) 춘천은 홍천(1,013명), 원주(910명), 화천(866명), 강릉(548명) 순, 원주는 횡성(1,330명), 춘천(1,152명), 강릉(948명), 평창(560명) 순, 강릉은 동해(688명), 원주(675명), 삼척(423명) 순임
 - 총 전입자가 2,000명 이상인 지자체는 원주(6,932명), 춘천(5,803명), 강릉(4,199명), 속초(2,950명), 동해(2,584명)임

• 표 3-9 | 도 내 시·군 간 인구이동 •

(단위 : 명)

O/D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전출계
춘천	-	1,152	469	118	48	234	86	698	85	62	83	62	158	539	413	225	52	61	4,545
원주	910	-	675	206	191	186	132	256	967	290	317	194	63	70	79	98	34	60	4,728
강릉	548	948	-	586	111	393	241	62	50	54	244	132	23	16	35	47	62	281	3,833
동해	176	308	688	-	109	89	552	21	14	16	35	67	5	9	11	11	23	30	2,164
태백	107	409	165	188	-	27	152	5	10	58	16	128	2	1	6	5	1	13	1,293
속초	329	247	373	73	21	-	53	37	18	13	30	17	11	12	37	118	853	403	2,645
삼척	173	248	423	1,154	124	97	-	32	7	23	24	58	14	8	4	19	12	23	2,443
홍천	1,013	485	93	18	9	55	19	-	52	17	28	8	17	20	16	116	12	13	1,991
횡성	130	1,330	69	32	6	19	5	45	-	14	40	12	14	8	9	7	4	3	1,747
영월	98	438	57	20	43	13	21	11	11	-	37	128	5	4	12	3	7	7	915
평창	88	560	411	33	16	22	20	30	65	54	-	45	1	7	6	13	6	10	1,387
정선	97	317	212	69	124	15	50	8	23	108	54	-	1	1	1	7	6	7	1,100
철원	252	59	40	13	3	12	8	21	10	7	6	2	-	54	5	23	5	8	528
화천	866	65	20	3	1	25	7	41	6	6	4	2	57	-	11	34	2	12	1,162
양구	493	78	28	11	9	34	11	49	8	4	4	1	18	19	-	171	12	7	957
인제	356	154	48	9	3	149	9	131	18	6	10	3	26	22	120	-	22	31	1,117
고성	80	55	99	12	5	1,068	17	6	12	5	11	8	18	10	7	29	-	49	1,491
양양	87	79	329	39	4	512	25	19	5	-	10	6	4	4	7	20	58	-	1,208
전입계	5,803	6,932	4,199	2,584	827	2,950	1,408	1,472	1,361	737	953	873	437	804	779	946	1,171	1,018	35,254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순유입은 원주(2,204명), 춘천(1,258명), 동해(420명), 강릉(366명), 속초(205명) 이상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하였고, 나머지 13개 지자체에서는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삼척(1,035명)에서 가장 많은 순유출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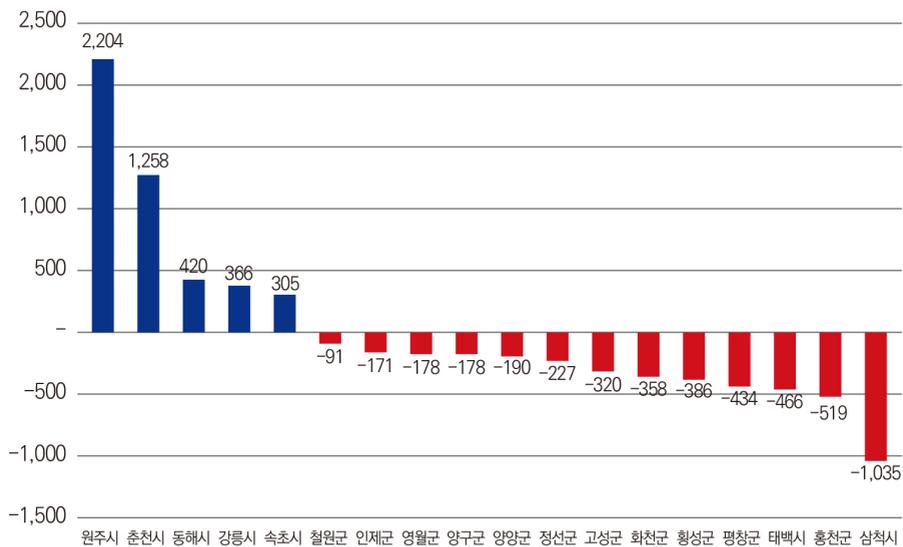
• 표 3-10 | 도내 시·군 간 인구이동량 •

단위 : 명

전출·전입지	전입자 수	전출자 수	순이동
춘천시	5,803(2)	4,545(2)	1,258(2)
원주시	6,932(1)	4,728(1)	2,204(1)
강릉시	4,199(3)	3,833(3)	366(4)
동해시	2,584(5)	2,164(6)	420(3)
태백시	827(14)	1,293(11)	-466(16)
속초시	2,950(4)	2,645(4)	305(5)
삼척시	1,408(7)	2,443(5)	-1,035(18)
홍천군	1,472(6)	1,991(7)	-519(17)
횡성군	1,361(8)	1,747(8)	-386(14)
영월군	737(17)	915(17)	-178(8)
평창군	953(11)	1,387(10)	-434(15)
정선군	873(13)	1,100(15)	-227(11)
철원군	437(18)	528(18)	-91(6)
화천군	804(15)	1,162(13)	-358(13)
양구군	779(16)	957(16)	-178(8)
인제군	946(12)	1,117(14)	-171(7)
고성군	1,171(9)	1,491(9)	-320(12)
양양군	1,018(10)	1,208(12)	-190(10)
합계	35,254	35,254	0

주 : 괄호() 안 숫자는 이동량 순위임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6 | 도내 시·군 간 순이동자 수 •



18개 시·군별 도내·외 순이동

- 춘천, 강릉, 동해의 경우, 도 내 17개 시·군에서 유입량이 많지만, 원주, 속초, 홍천, 횡성, 평창, 정선, 화천, 인제, 고성, 양양은 도 외로부터 유입량이 많음

• 표 3-11 | 순이동에 따른 유형 구분 •

유형	내용
증가	(+, +, +) • 춘천, 원주, 강릉, 속초는 시·군 간 순유입과 시·도 간 순유입 모두 발생하여 인구가 증가한 지역
	(+, -, +) • 동해는 시·군 간 순유입과 시·도 간 순유출이 발생하여 인구가 증가한 지역
	(-, +, +) • 홍천, 횡성, 인제, 양양은 시·군 간 순유출과 시·도 간 순유입이 발생하여 인구가 증가한 지역
감소	(-, +, -) • 평창, 정선, 화천, 고성은 시·군 간 순유출과 시·도 간 순유입이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한 지역
	(-, -, -) • 태백, 삼척, 영월, 철원, 양구는 시·군 간 순유출과 시·도 간 순유출 모두 발생하여 인구가 감소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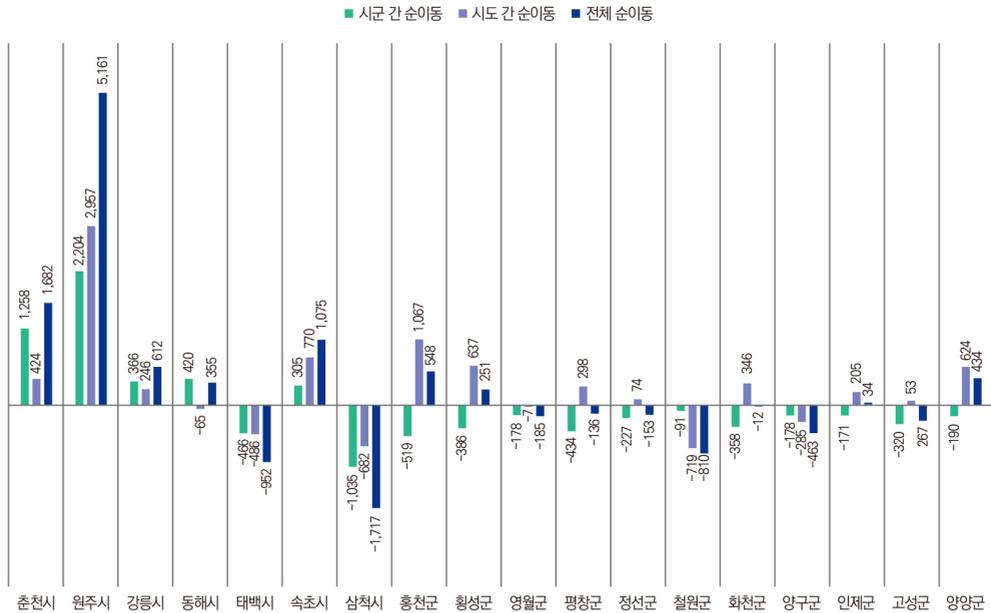
• 표 3-12 | 18개 시·군별 순이동 현황 •

(단위 : 명)

전출·전입지	시·군 간 순이동	시·도 간 순이동	전체 순이동
춘천시(+++)	1,258	424	1,682
원주시(+++)	2,204	2,957	5,161
강릉시(+++)	366	246	612
동해시(+++)	420	-65	355
태백시(---)	-466	-486	-952
속초시(+++)	305	770	1,075
삼척시(---)	-1,035	-682	-1,717
홍천군(+++)	-519	1067	548
횡성군(+++)	-386	637	251
영월군(---)	-178	-7	-185
평창군(+++)	-434	298	-136
정선군(+++)	-227	74	-153
철원군(---)	-91	-719	-810
화천군(+++)	-358	346	-12
양구군(---)	-178	-285	-463
인제군(+++)	-171	205	34
고성군(+++)	-320	53	-267
양양군(+++)	-190	624	434
합계	0	5,457	5,457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7 | 시·군별 순이동 현황 •



연령대별 인구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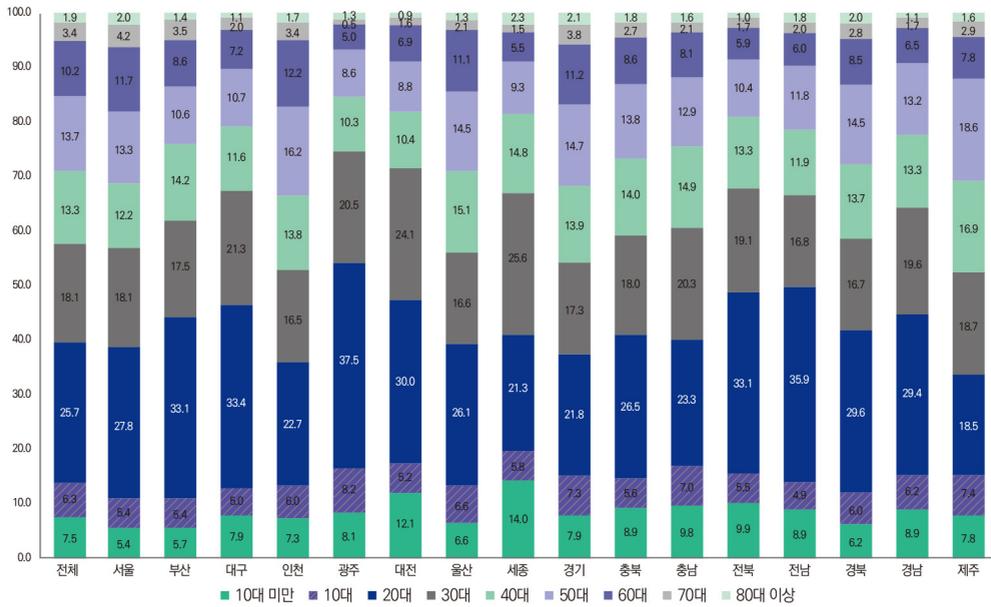
- 타 시·도로부터 전입한 총 8만 2,291명 가운데 20대가 2만 1,140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25.7%)을 차지하고, 30대(18.1%), 50대(13.7%), 40대(13.3%), 60대(10.2%) 순으로 비중이 높음
-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20대의 전입 비중이 가장 크며, 광주(37.5%), 전남(35.9%), 대구(33.4%), 부산(33.1%), 전북(33.1%), 대전(30.0%) 지역에서 20대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
 - 세종과 제주는 30대 비중(각 25.6%, 18.7%)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30대뿐 아니라 20대(18.5%), 40대(16.9%), 50대(18.6%)에서 고르게 전입함을 확인

• 표 3-13 | 연령대별 강원도 전입인구 •

(단위 : 명, %)

전출지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입자수
서울	1,108 (5.4)	1,120 (5.4)	5,746 (27.8)	3,748 (18.1)	2,528 (12.2)	2,743 (13.3)	2,418 (11.7)	867 (4.2)	423 (2.0)	20,701
부산	120 (5.7)	114 (5.4)	695 (33.1)	368 (17.5)	299 (14.2)	222 (10.6)	181 (8.6)	74 (3.5)	29 (1.4)	2,102
대구	153 (7.9)	97 (5.0)	650 (33.4)	414 (21.3)	225 (11.6)	208 (10.7)	140 (7.2)	38 (2.0)	22 (1.1)	1,947
인천	406 (7.3)	335 (6.0)	1,257 (22.7)	917 (16.5)	765 (13.8)	899 (16.2)	678 (12.2)	190 (3.4)	97 (1.7)	5,544
광주	67 (8.1)	68 (8.2)	310 (37.5)	169 (20.5)	85 (10.3)	71 (8.6)	41 (5.0)	4 (0.5)	11 (1.3)	826
대전	269 (12.1)	116 (5.2)	665 (30.0)	534 (24.1)	231 (10.4)	196 (8.8)	152 (6.9)	35 (1.6)	19 (0.9)	2,217
울산	65 (6.6)	65 (6.6)	259 (26.1)	165 (16.6)	150 (15.1)	144 (14.5)	110 (11.1)	21 (2.1)	13 (1.3)	992
세종	86 (14.0)	36 (5.8)	131 (21.3)	158 (25.6)	91 (14.8)	57 (9.3)	34 (5.5)	9 (1.5)	14 (2.3)	616
경기	2,331 (7.9)	2,143 (7.3)	6,411 (21.8)	5,073 (17.3)	4,091 (13.9)	4,326 (14.7)	3,286 (11.2)	1,113 (3.8)	607 (2.1)	29,381
충북	412 (8.9)	258 (5.6)	1,222 (26.5)	833 (18.0)	647 (14.0)	639 (13.8)	396 (8.6)	123 (2.7)	85 (1.8)	4,615
충남	314 (9.8)	222 (7.0)	743 (23.3)	649 (20.3)	475 (14.9)	412 (12.9)	258 (8.1)	68 (2.1)	52 (1.6)	3,193
전북	131 (9.9)	73 (5.5)	437 (33.1)	252 (19.1)	175 (13.3)	137 (10.4)	78 (5.9)	23 (1.7)	13 (1.0)	1,319
전남	140 (8.9)	78 (4.9)	565 (35.9)	265 (16.8)	188 (11.9)	186 (11.8)	94 (6.0)	32 (2.0)	28 (1.8)	1,576
경북	228 (6.2)	220 (6.0)	1,094 (29.6)	618 (16.7)	506 (13.7)	534 (14.5)	313 (8.5)	105 (2.8)	74 (2.0)	3,692
경남	241 (8.9)	168 (6.2)	793 (29.4)	528 (19.6)	358 (13.3)	355 (13.2)	174 (6.5)	47 (1.7)	29 (1.1)	2,693
제주	68 (7.8)	65 (7.4)	162 (18.5)	164 (18.7)	148 (16.9)	163 (18.6)	68 (7.8)	25 (2.9)	14 (1.6)	877
전체	6,139 (7.5)	5,178 (6.3)	21,140 (25.7)	14,855 (18.1)	10,962 (13.3)	11,292 (13.7)	8,421 (10.2)	2,774 (3.4)	1,530 (1.9)	82,291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총 7만 6,834명이 유출되었고, 그 중 20대가 33.8%(2만 5,96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대 전출자 비율에 이어 30대(17.6%), 40대(12.2%), 50대(10.7%)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20대의 전출 비중이 크며, 20대 평균 비중보다 높은 지역은 서울(44.6%), 인천(34.7%), 부산(34.3%)이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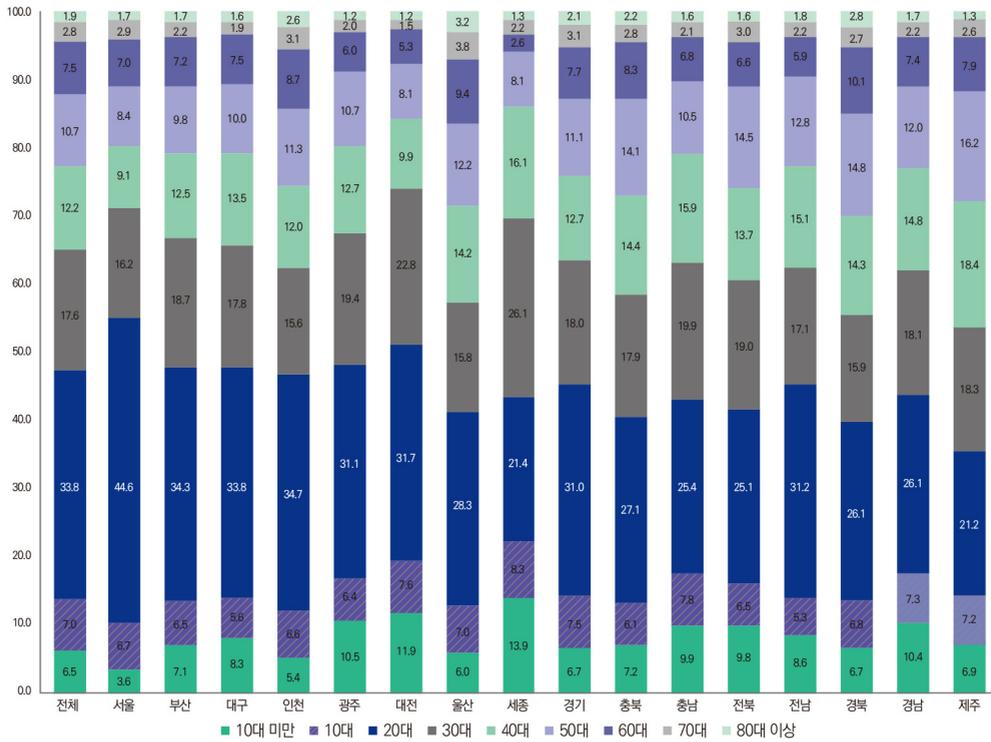
 - 세종시는 전입과 동일하게 30대 비중(26.1%)이 가장 크게 차지함

• 표 3-14 | 연령대별 강원도 전출인구 •

(단위 : 명, %)

전입지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출자수
서울	720 (3.6)	1,334 (6.7)	8,936 (44.6)	3,245 (16.2)	1,821 (9.1)	1,676 (8.4)	1,405 (7.0)	580 (2.9)	331 (1.7)	20,048
부산	128 (7.1)	118 (6.5)	622 (34.3)	340 (18.7)	226 (12.5)	178 (9.8)	131 (7.2)	40 (2.2)	31 (1.7)	1,814
대구	124 (8.3)	83 (5.6)	505 (33.8)	266 (17.8)	202 (13.5)	150 (10.0)	112 (7.5)	29 (1.9)	24 (1.6)	1,495
인천	234 (5.4)	288 (6.6)	1,510 (34.7)	677 (15.6)	524 (12.0)	492 (11.3)	379 (8.7)	135 (3.1)	114 (2.6)	4,353
광주	72 (10.5)	44 (6.4)	213 (31.1)	133 (19.4)	87 (12.7)	73 (10.7)	41 (6.0)	14 (2.0)	8 (1.2)	685
대전	279 (11.9)	179 (7.6)	744 (31.7)	535 (22.8)	232 (9.9)	189 (8.1)	124 (5.3)	34 (1.5)	28 (1.2)	2,344
울산	41 (6.0)	48 (7.0)	195 (28.3)	109 (15.8)	98 (14.2)	84 (12.2)	65 (9.4)	26 (3.8)	22 (3.2)	688
세종	107 (13.9)	64 (8.3)	165 (21.4)	201 (26.1)	124 (16.1)	62 (8.1)	20 (2.6)	17 (2.2)	10 (1.3)	770
경기	1,919 (6.7)	2,137 (7.5)	8,834 (31.0)	5,136 (18)	3,630 (12.7)	3,169 (11.1)	2,199 (7.7)	893 (3.1)	587 (2.1)	28,504
충북	302 (7.2)	259 (6.1)	1,141 (27.1)	754 (17.9)	607 (14.4)	594 (14.1)	350 (8.3)	119 (2.8)	91 (2.2)	4,217
충남	326 (9.9)	257 (7.8)	838 (25.4)	655 (19.9)	526 (15.9)	348 (10.5)	225 (6.8)	70 (2.1)	54 (1.6)	3,299
전북	126 (9.8)	83 (6.5)	322 (25.1)	244 (19.0)	176 (13.7)	186 (14.5)	85 (6.6)	39 (3.0)	20 (1.6)	1,281
전남	113 (8.6)	70 (5.3)	410 (31.2)	224 (17.1)	198 (15.1)	168 (12.8)	77 (5.9)	29 (2.2)	24 (1.8)	1,313
경북	199 (6.7)	200 (6.8)	772 (26.1)	469 (15.9)	422 (14.3)	437 (14.8)	298 (10.1)	79 (2.7)	82 (2.8)	2,958
경남	236 (10.4)	165 (7.3)	593 (26.1)	411 (18.1)	335 (14.8)	272 (12.0)	167 (7.4)	50 (2.2)	39 (1.7)	2,268
제주	55 (6.9)	57 (7.2)	169 (21.2)	146 (18.3)	147 (18.4)	129 (16.2)	63 (7.9)	21 (2.6)	10 (1.3)	797
전체	4,981 (6.5)	5,386 (7.0)	25,969 (33.8)	13,545 (17.6)	9,355 (12.2)	8,207 (10.7)	5,741 (7.5)	2,175 (2.8)	1,475 (1.9)	76,834

자료: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연령대별 순이동

- 연령대별 강원도 순이동을 보면, 10대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입 발생
 - 순유입은 50대(3,085명), 60대(2,680명), 40대(1,607명), 30대(1,310명), 10대 미만(1,158명), 70대(599명), 80대 이상(55명) 순임
- 10대와 20대는 각 208명과 4,829명의 순유출 발생

• 표 3-15 | 연령대별 강원도 순이동 •

(단위 : 명, %)

전·출입지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서울	388	-214	-3,190	503	707	1,067	1,013	287	92
부산	-8	-4	73	28	73	44	50	34	-2
대구	29	14	145	148	23	58	28	9	-2
인천	172	47	-253	240	241	407	299	55	-17
광주	-5	24	97	36	-2	-2	0	-10	3
대전	-10	-63	-79	-1	-1	7	28	1	-9
울산	24	17	64	56	52	60	45	-5	-9
세종	-21	-28	-34	-43	-33	-5	14	-8	4
경기	412	6	-2,423	-63	461	1,157	1,087	220	20
충북	110	-1	81	79	40	45	46	4	-6
충남	-12	-35	-95	-6	-51	64	33	-2	-2
전북	5	-10	115	8	-1	-49	-7	-16	-7
전남	27	8	155	41	-10	18	17	3	4
경북	29	20	322	149	84	97	15	26	-8
경남	5	3	200	117	23	83	7	-3	-10
제주	13	8	-7	18	1	34	5	4	4
순이동	1,158	-208	-4,829	1,310	1,607	3,085	2,680	599	55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도 내·외 전출 사유

-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간 전출한 사유 1순위는 직업(39.1%), 2순위 가족(27.5%), 3순위 주택(18.1%)이며, 전체 전출 사유의 84.7%를 차지
- 강원도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사유 역시 직업(42.8%), 가족(28.2%), 주택(12.1%) 순이며, 취업 및 구직 등 직업 때문에 타 시·도로 전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도내 이동은 주택, 주거환경, 도외 이동은 직업, 교육의 비중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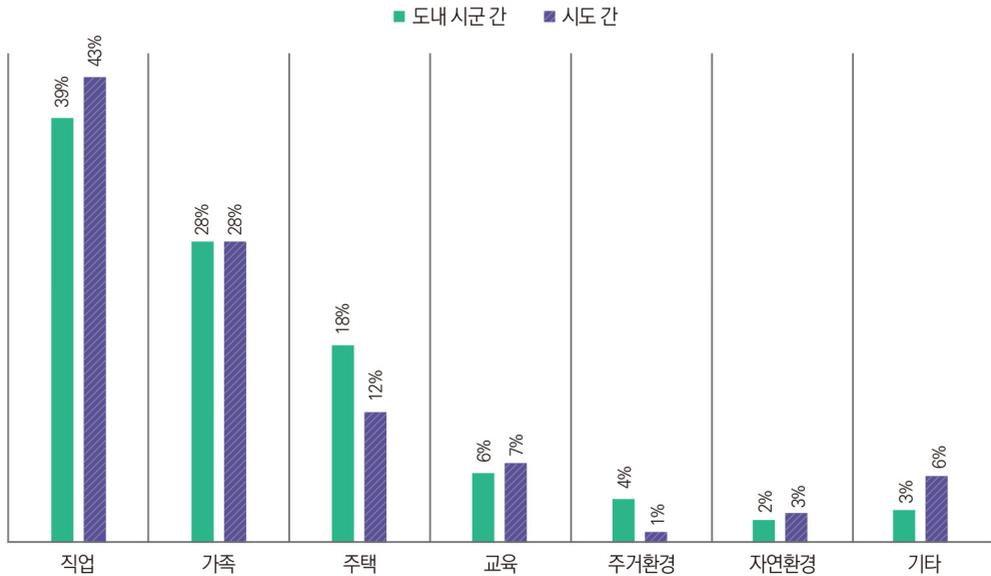
• 표 3-16 | 시·도 및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 •

(단위 : 명, %)

	도내 시·군간 전출	타 시·도로 전출
직업	10,411(39.1)	26,735(42.8)
가족	7,338(27.5)	17,608(28.2)
주택	4,822(18.1)	7,557(12.1)
교육	1,666(6.2)	4,493(7.2)
주거환경	1,073(4.0)	605(1.0)
자연환경	576(2.2)	1,681(2.7)
기타	773(2.9)	3,813(6.1)
계	26,659	62,492

주 : 유출사유는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주만 추출하여 분석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8 | 강원도 전체 전출 사유 •



시·군별 타 지역 전출 사유

- 다른 시·도로 전출한 시·군별 사유를 보면, 대부분 시·군에서 강원도 전출 사유와 유사하게 직업, 가족, 주택 순으로 나타남
- 강원도 평균값(42.8%)을 기준으로 전출 사유 1순위인 직업에서는 동해시(50.5%), 양구군(49.9%), 인제군(49.4%), 화천군(47.5%), 속초시(45.7%), 고성군(44.9%), 원주시(44.5%), 춘천시(43.2%), 철원군(43.0%)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지역으로 분류됨
- 2순위인 가족에서는 삼척시(38.5%), 횡성군(35.8%), 영월군(35.1%), 평창군(31.7%), 홍천군(28.5%), 강릉시(28.4%)가 강원도 평균(28.2%)보다 높은 지역이며, 특히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은 해당 지역 전출 1순위로 나타남
- 3순위인 주택에서는 정선군(16.3%), 평창군(14.7%), 양양군(14.5%), 횡성군(14.2%), 영월군(13.9%), 철원군(13.7%), 태백시(13.2%), 홍천군(12.8%), 속초시(12.7%), 원주시(12.2%)가 강원도 평균(12.1%)보다 높은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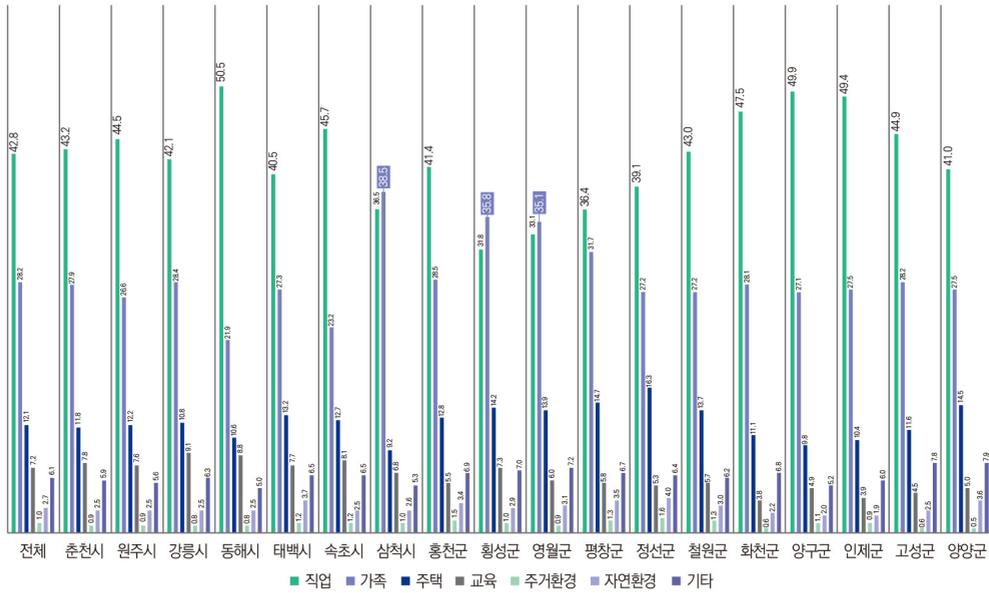
• 표 3-17 | 시·군별 타 시도 전출 사유 •

(단위 : 명, %)

전출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춘천시	4,340(43.2)	2,800(27.9)	1,183(11.8)	787(7.8)	91(0.9)	253(2.5)	588(5.9)	10,042
원주시	6,171(44.5)	3,679(26.6)	1,696(12.2)	1,057(7.6)	126(0.9)	345(2.5)	779(5.6)	13,853
강릉시	3,219(42.1)	2,170(28.4)	829(10.8)	700(9.1)	58(0.8)	194(2.5)	481(6.3)	7,651
동해시	1,657(50.5)	719(21.9)	348(10.6)	289(8.8)	25(0.8)	81(2.5)	164(5.0)	3,283
태백시	699(40.5)	471(27.3)	227(13.2)	133(7.7)	20(1.2)	64(3.7)	112(6.5)	1,726
속초시	1,445(45.7)	733(23.2)	403(12.7)	257(8.1)	39(1.2)	80(2.5)	205(6.5)	3,162
삼척시	1,114(36.5)	1,174(38.5)	280(9.2)	208(6.8)	32(1.0)	79(2.6)	162(5.3)	3,049
홍천군	1,173(41.4)	808(28.5)	364(12.8)	156(5.5)	42(1.5)	97(3.4)	195(6.9)	2,835
횡성군	600(31.8)	675(35.8)	267(14.2)	138(7.3)	18(1.0)	54(2.9)	132(7.0)	1,884
영월군	771(33.8)	801(35.1)	317(13.9)	136(6.0)	21(0.9)	70(3.1)	164(7.2)	2,280
평창군	698(36.4)	607(31.7)	282(14.7)	111(5.8)	24(1.3)	67(3.5)	128(6.7)	1,917
정선군	574(39.1)	399(27.2)	239(16.3)	78(5.3)	24(1.6)	59(4.0)	94(6.4)	1,467
철원군	1,146(43.0)	725(27.2)	366(13.7)	152(5.7)	34(1.3)	80(3.0)	165(6.2)	2,668
화천군	657(47.5)	388(28.1)	153(11.1)	52(3.8)	8(0.6)	31(2.2)	94(6.8)	1,383
양구군	625(49.9)	339(27.1)	123(9.8)	62(4.9)	14(1.1)	25(2.0)	65(5.2)	1,253
인제군	843(49.4)	470(27.5)	177(10.4)	67(3.9)	16(0.9)	32(1.9)	102(6.0)	1,707
고성군	544(44.9)	342(28.2)	141(11.6)	54(4.5)	7(0.6)	30(2.5)	94(7.8)	1,212
양양군	459(41.0)	308(27.5)	162(14.5)	56(5.0)	6(0.5)	40(3.6)	89(7.9)	1,120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9 | 시·군별 타 시도 전출 사유 •



- 도내 시·군으로 전출한 시·군별 사유도 대부분 다른 유형 인구이동의 전출 사유와 동일하게 직업, 가족, 주택 순으로 나타남

• 표 3-18 | 시·군별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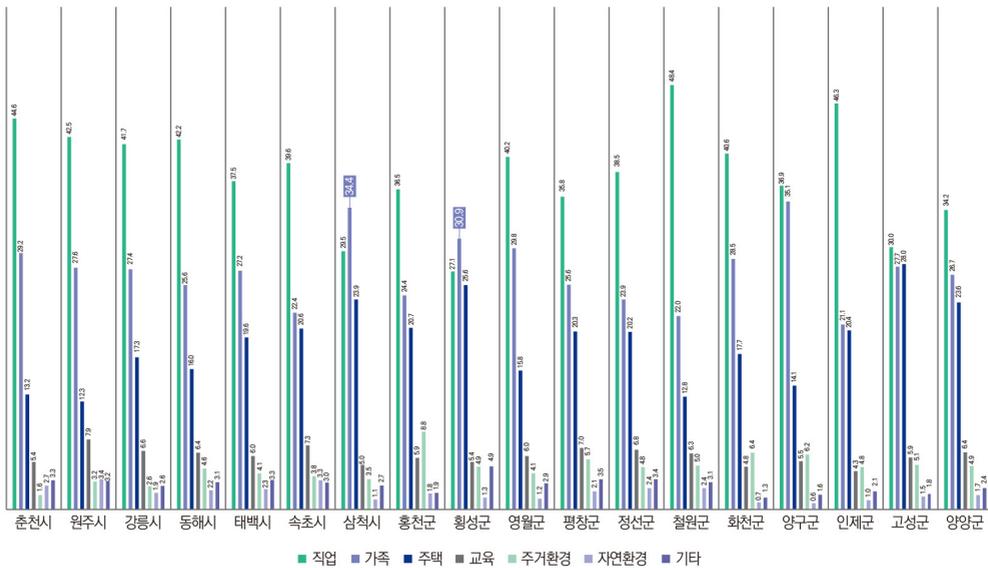
(단위 : 명, %)

전출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춘천시	1,591(44.6)	1,043(29.2)	471(13.2)	193(5.4)	58(1.6)	97(2.7)	117(3.3)	3,570
원주시	1,583(42.5)	1,028(27.6)	458(12.3)	293(7.9)	118(3.2)	128(3.4)	120(3.2)	3,728
강릉시	1,256(41.7)	824(27.4)	522(17.3)	199(6.6)	77(2.6)	57(1.9)	77(2.6)	3,012
동해시	727(42.2)	441(25.6)	275(16.0)	110(6.4)	79(4.6)	38(2.2)	53(3.1)	1,723
태백시	357(37.5)	259(27.2)	187(19.6)	57(6.0)	39(4.1)	22(2.3)	31(3.3)	952
속초시	767(39.6)	433(22.4)	399(20.6)	142(7.3)	73(3.8)	64(3.3)	58(3.0)	1,936
삼척시	540(29.5)	628(34.4)	436(23.9)	91(5.0)	64(3.5)	20(1.1)	49(2.7)	1,828
홍천군	507(36.5)	339(24.4)	288(20.7)	82(5.9)	123(8.8)	25(1.8)	26(1.9)	1,390
횡성군	354(27.1)	403(30.9)	334(25.6)	70(5.4)	64(4.9)	17(1.3)	64(4.9)	1,306
영월군	302(40.2)	224(29.8)	119(15.8)	45(6.0)	31(4.1)	9(1.2)	22(2.9)	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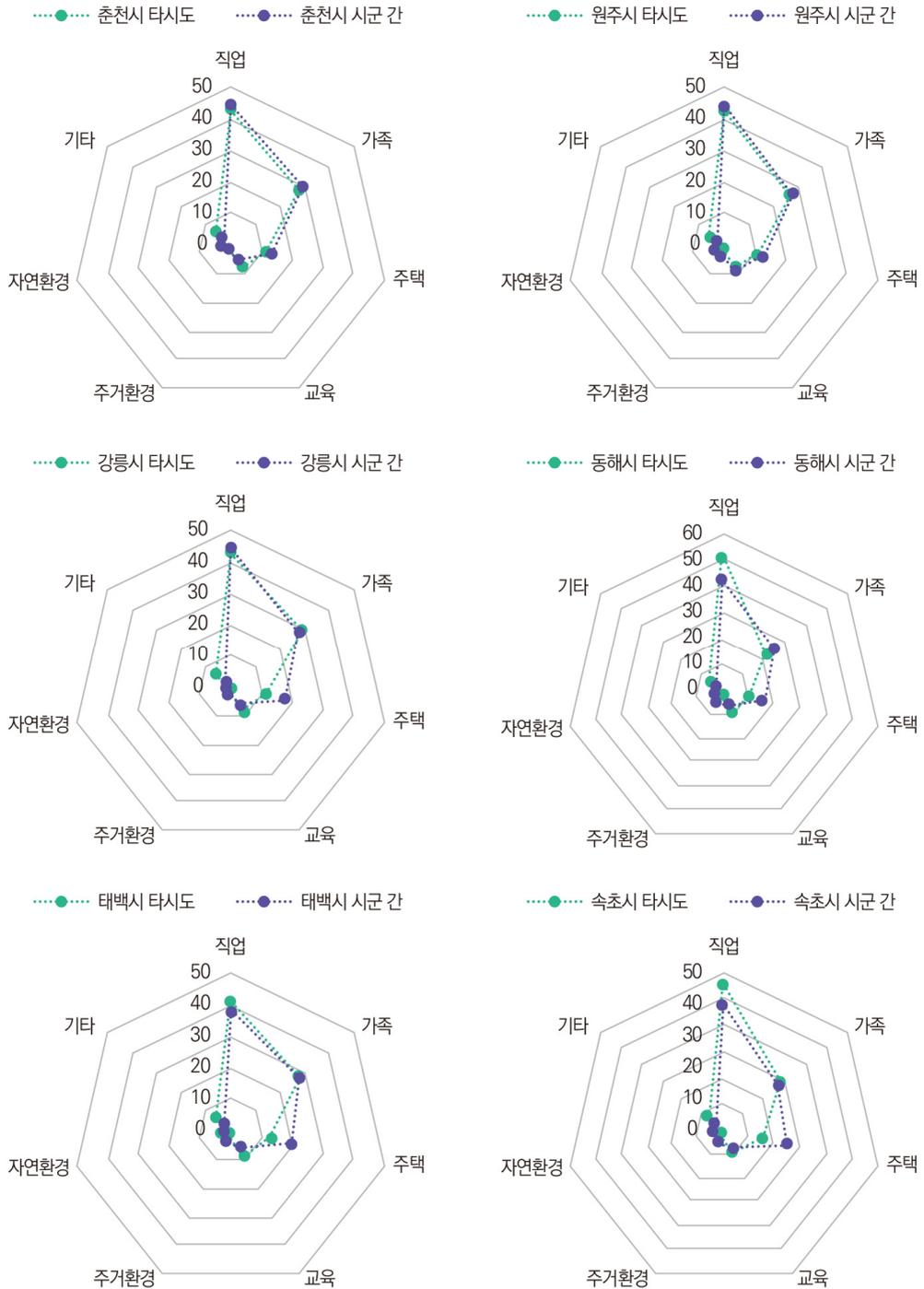
전출지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계
평균군	378(35.8)	271(25.6)	215(20.3)	74(7.0)	60(5.7)	22(2.1)	37(3.5)	1,057
정선군	336(38.5)	209(23.9)	176(20.2)	59(6.8)	42(4.8)	21(2.4)	30(3.4)	873
철원군	185(48.4)	84(22.0)	49(12.8)	24(6.3)	19(5.0)	9(2.4)	12(3.1)	382
화천군	312(40.6)	219(28.5)	136(17.7)	37(4.8)	49(6.4)	5(0.7)	10(1.3)	768
양구군	261(36.9)	248(35.1)	100(14.1)	39(5.5)	44(6.2)	4(0.6)	11(1.6)	707
인제군	331(46.3)	151(21.1)	146(20.4)	31(4.3)	34(4.8)	7(1.0)	15(2.1)	715
고성군	327(30.0)	302(27.7)	306(28.0)	64(5.9)	56(5.1)	16(1.5)	20(1.8)	1,091
양양군	297(34.2)	232(26.7)	205(23.6)	56(6.4)	43(4.9)	15(1.7)	21(2.4)	869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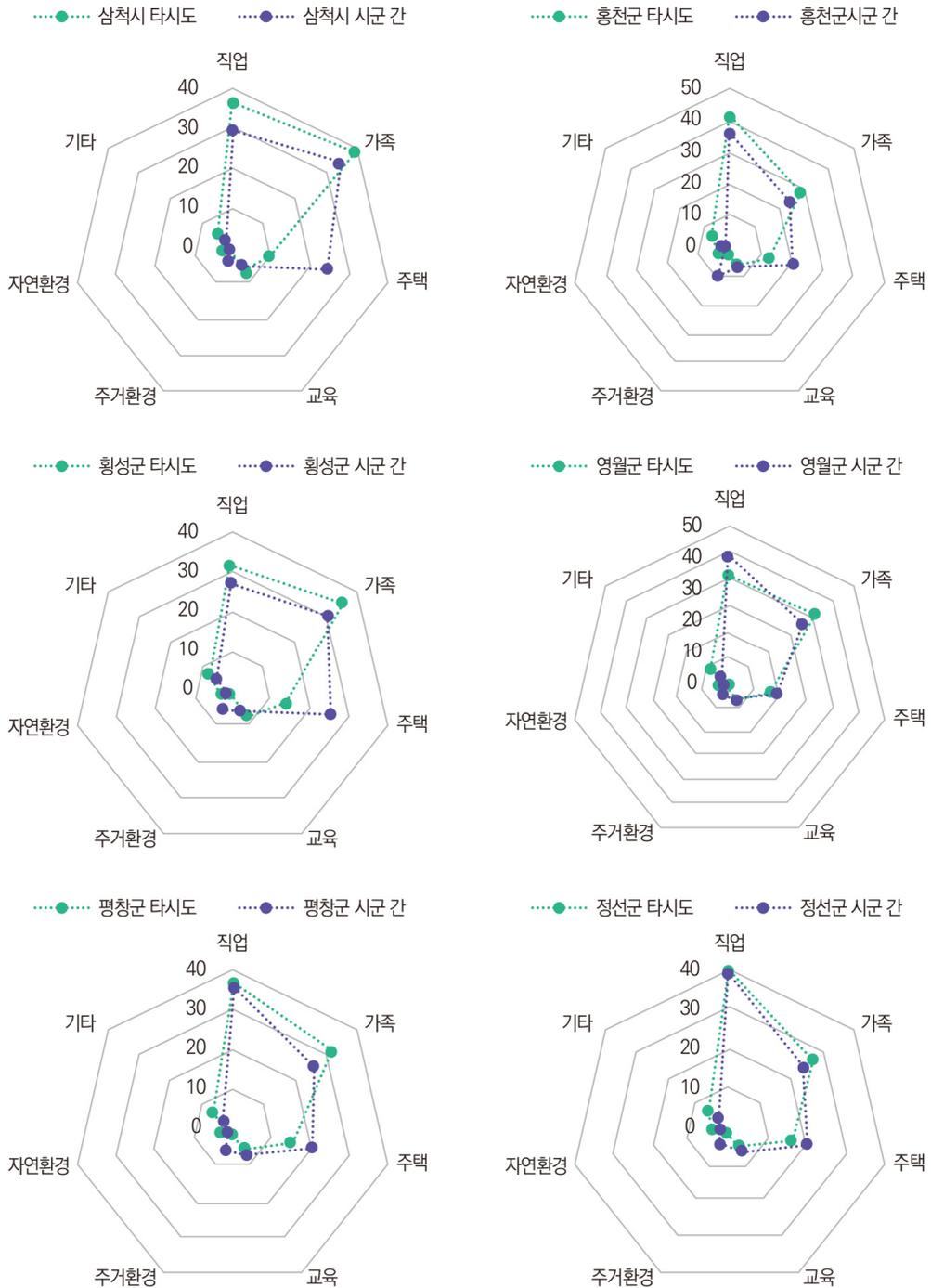
• 그림 3-10 | 시·군별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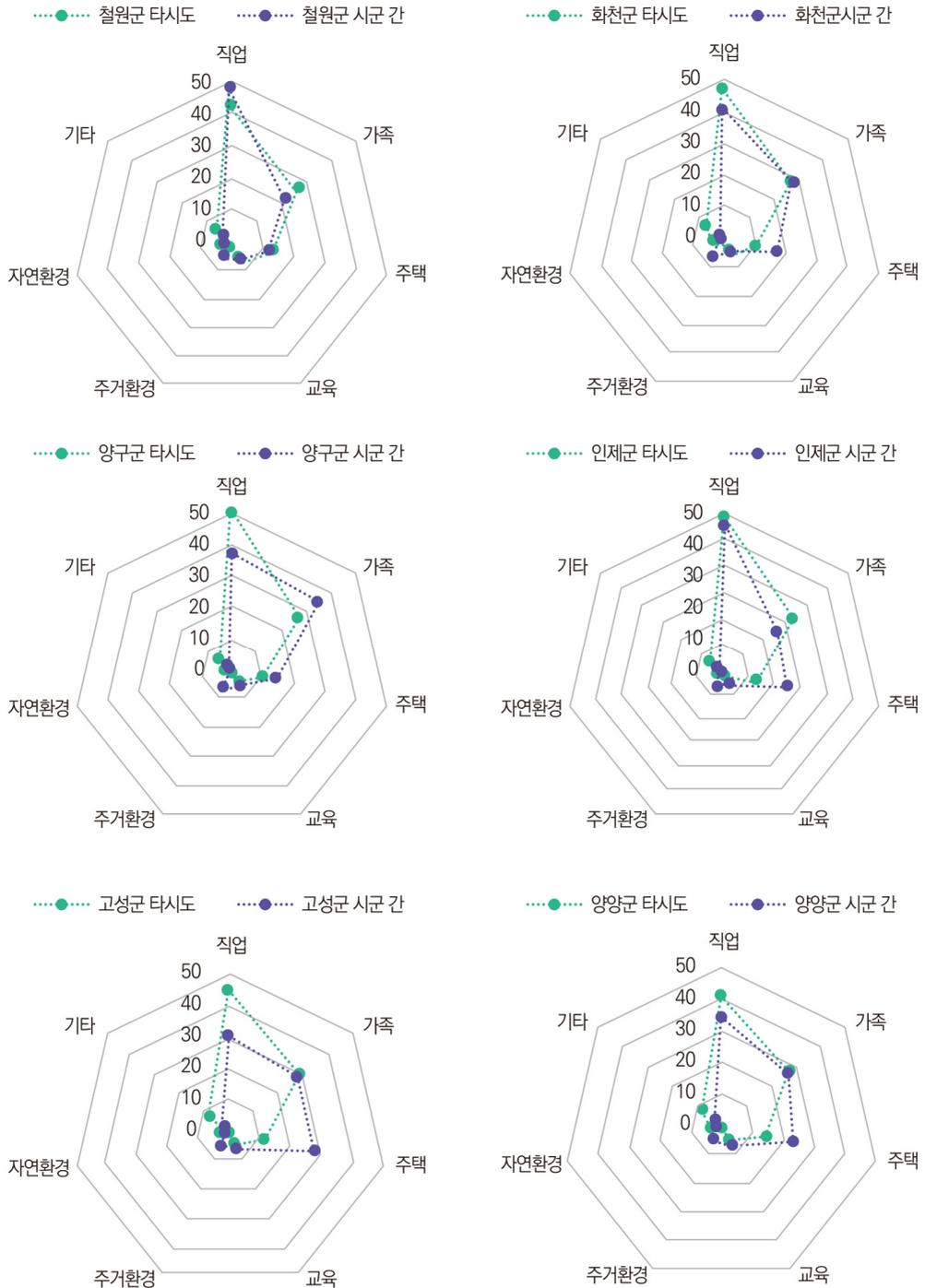
• 그림 3-11 | 시·군별 타시·도 및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 ① •



• 그림 3-12 | 시·군별 타사·도 및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 ② •



• 그림 3-13 | 시·군별 타시·도 및 도내 시·군 간 전출 사유 ③ •



연령대별 전출 사유(강원도)

- 10대 미만은 가족(55.5%), 10대는 교육(42.2%), 20대~50대는 직업(각 50.2%, 53.6%, 48.3%, 38.2%), 60대 이상은 가족(각 37.1%, 43.8%, 56.2%)이 전출 사유 1순위임
- 각 연령대별 2순위로는 10대 미만에서는 교육(28.2%), 10대~50대까지 가족(각 33.2%, 25.5%, 25.6%, 23.5%, 27.7%), 60대 이상은 주택(각 23.5%, 27.7%, 18.9%)이 해당
- 3순위는 10대 미만 기타(6.8%), 10대 직업(13.9%), 20대 교육(10.9%), 30대~50대 주택(각 11.2%, 14.1%, 19.4%), 60대 직업(21.8%), 70대 이상 기타(각 11.6%, 10.7%)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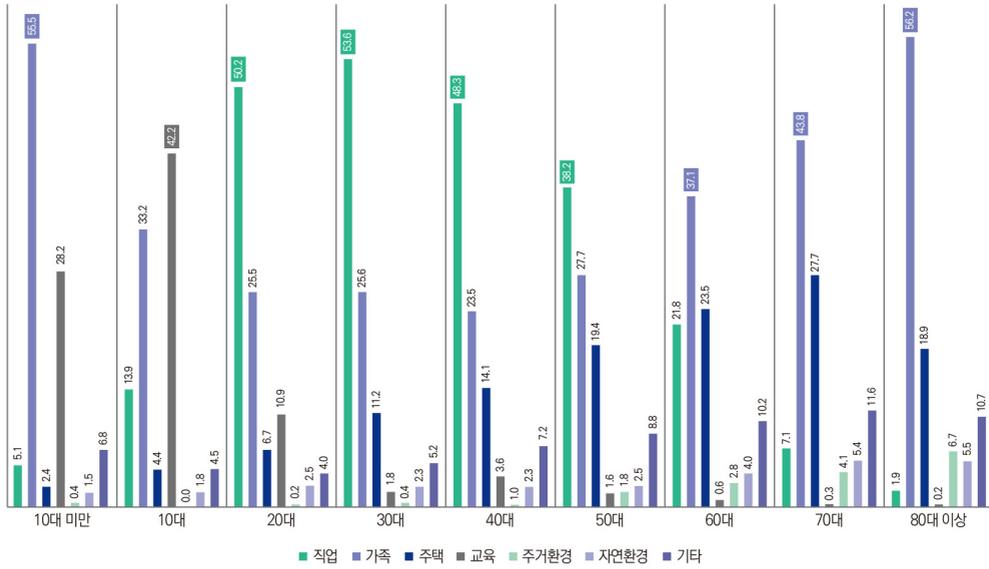
• 표 3-19 | 연령대별 타 시도 전출 사유 •

(단위 : 명,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소계
10대 미만	23 (5.1)	252 (55.5)	11 (2.4)	128 (28.2)	2 (0.4)	7 (1.5)	31 (6.8)	454
10대	355 (13.9)	845 (33.2)	111 (4.4)	1,073 (42.2)	1 (0.0)	46 (1.8)	114 (4.5)	2,545
20대	12,154 (50.2)	6,185 (25.5)	1,628 (6.7)	2,634 (10.9)	38 (0.2)	608 (2.5)	976 (4.0)	24,223
30대	6,239 (53.6)	2,979 (25.6)	1,300 (11.2)	211 (1.8)	42 (0.4)	270 (2.3)	600 (5.2)	11,641
40대	3,901 (48.3)	1,895 (23.5)	1,138 (14.1)	294 (3.6)	83 (1.0)	189 (2.3)	580 (7.2)	8,080
50대	2,804 (38.2)	2,031 (27.7)	1,420 (19.4)	116 (1.6)	133 (1.8)	187 (2.5)	643 (8.8)	7,334
60대	1,102 (21.8)	1,872 (37.1)	1,188 (23.5)	30 (0.6)	142 (2.8)	202 (4.0)	514 (10.2)	5,050
70대	132 (7.1)	811 (43.8)	513 (27.7)	5 (0.3)	76 (4.1)	100 (5.4)	214 (11.6)	1,851
80대 이상	25 (1.9)	738 (56.2)	248 (18.9)	2 (0.2)	88 (6.7)	72 (5.5)	141 (10.7)	1,314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 그림 3-14 | 연령대별 타 시·도 전출 사유 •



연령대별 전출 사유(18개 시·군별)

- 시·군별 타 시·도로 전출하는 연령대의 사유 역시 지역마다 비중은 다르지만 순위는 강원도 전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임
- 10대 미만 전출 사유 1순위인 가족과 다른 지역은 평창(교육)이며, 10대 전출 사유 1순위인 교육과 다른 도시는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정선, 철원(가족)임
- 20대 1순위인 직업과 다른 곳은 삼척(가족)이고, 50대에서는 횡성, 영월, 평창, 화천(가족)의 순위가 바뀜

• 표 3-20 | 연령대별 타 시도 전출 사유 1순위(시·군·별) •

(단위 : %)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춘천시	가족 (49.4)	교육 (47.1)	직업 (48.2)	직업 (52.4)	직업 (48.3)	직업 (38.5)	가족 (36.0)	가족 (47.7)	가족 (59.6)
원주시	가족 (61.6)	교육 (52.3)	직업 (51.8)	직업 (52.9)	직업 (48.7)	직업 (40.5)	가족 (35.9)	가족 (40.4)	가족 (55.4)
강릉시	가족 (68.3)	교육 (44.7)	직업 (47.2)	직업 (54.1)	직업 (47.6)	직업 (41.1)	가족 (40.0)	가족 (48.6)	가족 (60.7)
동해시	가족 (68.8)	교육 (55.6)	직업 (60.8)	직업 (60.0)	직업 (56.7)	직업 (40.5)	가족 (40.0)	가족 (43.2)	가족 (56.5)
태백시	가족 (68.4)	가족 (40.4)	직업 (51.3)	직업 (47.8)	직업 (47.3)	직업 (40.2)	가족 (37.2)	가족 (48.6)	가족 (42.9)
속초시	가족, 교육 (46.2)	교육 (57.7)	직업 (58.9)	직업 (56.1)	직업 (46.2)	직업 (38.6)	가족 (33.8)	가족 (39.2)	가족 (53.5)
삼척시	가족 (57.1)	가족 (55.3)	가족 (45.7)	직업 (55.4)	직업 (53.4)	직업 (42.3)	가족 (37.2)	가족 (50.9)	가족 (56.3)
홍천군	가족, 교육 (43.5)	가족 (40.6)	직업 (56.2)	직업 (56.5)	직업 (47.2)	직업 (33.2)	가족 (40.2)	가족 (47.0)	가족 (50.0)
횡성군	가족 (44.4)	가족 (67)	직업 (47.3)	직업 (45.1)	직업 (39.5)	가족 (34.0)	가족 (37.3)	가족 (38.1)	가족 (57.9)
영월군	가족, 교육 (41.7)	가족 (49.2)	직업 (40.5)	직업 (43.5)	직업 (40.9)	가족 (36.1)	가족 (35.2)	가족 (42)	가족 (47.4)
평창군	교육 (57.1)	교육 (52.0)	직업 (53.8)	직업 (42.4)	직업 (39.1)	가족 (36.2)	가족 (37.9)	가족 (40.7)	가족 (59.6)
정선군	가족 (53.8)	가족 (33.3)	직업 (54.6)	직업 (42.7)	직업 (41.4)	직업 (35.8)	가족 (34.3)	가족 (46.9)	가족 (53.1)
철원군	가족 (45.8)	가족 (40.7)	직업 (51.8)	직업 (51.9)	직업 (45.4)	직업 (34.3)	가족 (38.7)	가족 (44.4)	가족 (60)
화천군	가족 (44.4)	가족, 교육 (33.3)	직업 (51.7)	직업 (64.5)	직업 (55.5)	가족 (35.6)	가족 (30.6)	가족 (36.1)	가족 (57.9)
양구군	가족 (61.5)	가족, 교육 (37.9)	직업 (56.4)	직업 (62.4)	직업 (53.1)	직업 (35.2)	가족 (39.5)	가족 (42.9)	가족 (40)
인제군	가족 (46.2)	교육 (40)	직업 (55)	직업 (64.1)	직업 (60.6)	직업 (37.6)	가족 (43.1)	가족 (42.3)	가족 (57.1)
고성군	가족, 기타 (50)	교육 (38.7)	직업 (51)	직업 (59.5)	직업 (48.9)	직업 (41.9)	가족 (36.4)	가족 (36.1)	가족 (66.7)
양양군	가족 (68.8)	교육 (41.7)	직업 (53.1)	직업 (51.7)	직업 (49)	직업 (33.1)	가족 (34.1)	가족 (45.6)	가족 (79.2)

자료 : 통계청 MDIS 마이크로데이터

IV

강원도 인구정책 대응의 함의 및 시사점

1. 기초 및 접근

-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에서 확인된 도내 인구감소를 저지하여 인구를 유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강원도가 인구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전략의 개발 및 추진
 - 향후 본 이슈 리포트가 제시하고 있는 기초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강원도 인구 정책에 대한 추가적 개발도 필요
- 강원도 인구이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 주거 등 특화시책 개발을 통해 인구가 증가 하는 지역을 형성하여 상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고 싶은 강원도 형성
- 강원도 시군에 적합한 시책의 개발, 추진을 데이터에 토대할 뿐 아니라 시군의 자율 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시책 추진
 - 강원도청은 인구분석의 기반, 시책을 제공하며 18개 시·군은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시책을 발굴

• 표 4-1 | 기초 및 접근 •

구분	내용	비고
인구 유지 및 증가	• 1단계 : 강원도의 인구 유지, 공동체 유지 • 2단계 : 강원도의 인구증가, 인구 경쟁력 강화 * 이슈리포트 기초분석을 토대로 본격적인 강원도 인구정책개발 필요	2단계 접근 필요
지역 경쟁력 및 발전 강화	• 지역상권, 경제발전의 토대인 인구 경쟁력 강화 • 인구이동의 원인이 되는 일자리, 교육 여건 향상 • 인구가 증가하는 강원도 창출을 통해 삶의 질이 높은 강원도 형성	살고 싶은 강원도 창출
분권적 인구정책 시행	• 강원도청은 인구분석 인프라 분석 틀, 도 차원의 시책 제공 • 18개 시·군은 해당 지역의 인구특성을 분석하고 분권적 차원에서 적합한 시책을 개발	도청과 시·군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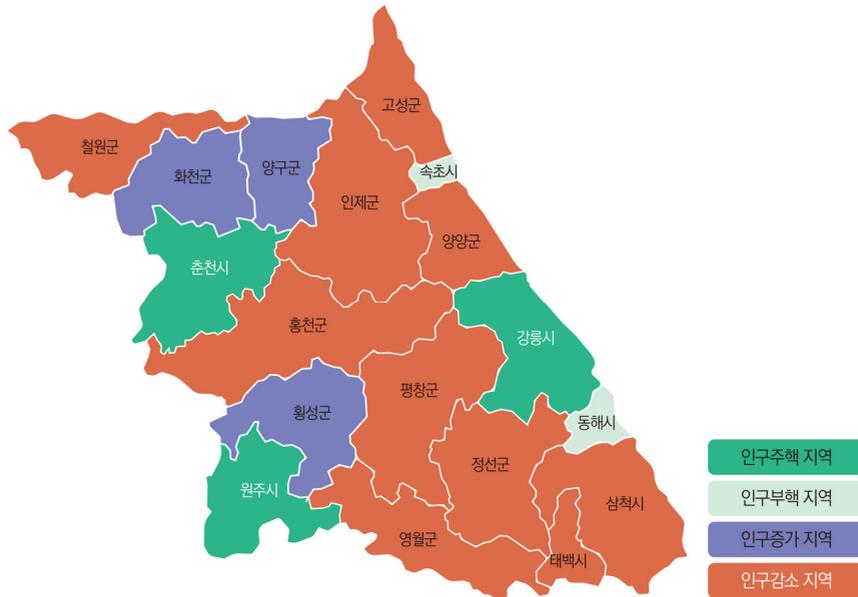
2. 전략의 중점

- 주로 수도권 및 대도시에 합당한 저출산 대응 시책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강원도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
 - 강원도 인구의 주핵(主核)에 해당하는 춘천, 원주, 강릉은 부차적으로 출산율 제고 시책의 추진도 가미
 -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출산율이 높지만, 출산 대상 인구 자체가 적음을 고려하여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 * 동시에 고령화가 증가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고령자 대응 시책 추진 병행
- 18개 시·군의 인구감소, 유출요인 등의 진단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응 시책을 제시
 - 최근('08~'20년)의 인구증감, 지역 간 인구이동 등을 고려하여 18개 시·군을 4개의 지역으로 구분
 - 강원도 인구담의 최상위 위치에 있는 3개 주핵(主核) 도시(춘천, 원주, 강릉), 2차적 위치에 있는 인구담 부핵(副核) 도시 2개(속초, 동해), 인구 증가지역 3개(횡성, 화천, 양구), 그리고 인구감소 지역(나머지 10개 시군)으로 구분

• 표 4-2 | 전략의 중점 •

구분	내용	비고
인구유입 및 인구유출 방지 시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적으로 전략의 중점은 저출산 보다는 지역의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강화 * 춘천, 원주, 강릉은 부분적으로 출산율 강화시책도 가미 • 나머지 대부분의 인구감소 지역은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 * 고령화되는 인구구조를 고려하여 고령자 대상의 시책 강화 	인구유치 경쟁력 강화시책 중점
인구 증감 시군 유형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증감 특성에 따라 18개 시·군을 유형화 * 인구담 기능의 주핵(主核) 지역 : 춘천, 원주, 강릉 인구담 기능의 부핵(부핵) 지역 : 속초, 동해 인구증가 지역 : 횡성, 양구, 화천 인구감소 지역 : 그 외 10 개 지역 • 유형화 4개 지역별 중점적인 추진 시책 제시 	도내 인구정책에서의 역할 추가

• 그림 4-1 | 인구증감 특성에 따른 강원도 시·군 유형 구분 •



3. 주요 시책

인구댐 형성 및 도내 인구 균형 강화

- 강원도의 인구가 3개의 중심지인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되고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강원도 차원의 인구유출 방지댐 구축 필요
 - 인구댐은 1차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형성·전개하되 총체적으로는 강원도 인구 육성 및 균형화 전략과 연계
- 인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댐의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로 부핵의 기능을 지닌 지역의 2차적인 지역 거점으로 인구댐 분산화 시책 필요
 - 도내 지역의 인구균형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핵이 되는 인구댐의 기능을 강화하고 부핵의 인구댐도 점차적으로 강화
 - 2차적인 인구댐의 기능은 속초, 동해를 중심으로 육성

- 인구담 간의 기능적 특화 및 상호 간의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여 강원도의 인구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
 - 가령, 춘천은 행정 중심지, 원주는 경제중심지, 강릉은 관광·여가 중심지로 특화하되 이들 지역 간에 네트워크 및 물리적 접근성 등을 강화

인구담의 분산적 집중

- 지역개발의 기본적 원리가 되고 있는 '분산적 집중'(deconcentrated concentration)을 적용
- 일본의 경우도 지방창생 정책 추진을 계기로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인구담 시책 시행

인구증감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별 추진 시책

- 18개 시·군을 최근('08~'20년)의 인구증감, 지역 간 인구이동을 고려해서 구분한 4개 유형의 지역별로 인구유출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 **인구 주핵(主核) 지역**(춘천, 원주, 강릉) : 강원도에서 외부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담 역할 수행,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의 고용 기능 강화 시책 추진, 강릉시의 경우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주택기능 강화 시책 추진 필요
- **인구 부핵(副核) 지역**(속초, 동해) : 강원도의 2차 인구거점 역할 수행 필요, 산업 및 고용 기반 육성 시책 추진 필요, 속초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 기능 강화시책 추진 필요
- **인구 증가 지역**(횡성, 화천, 양구) : 3 지역 중에서 산업 및 고용 시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양구, 횡성의 경우 주택 및 가족 요소의 결핍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 추진 필요, 화천의 경우도 직업 및 고용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 추진 필요
- **인구 감소 지역**(홍천,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 공통적으로 일자리 결핍 강화시책 추진 필요, 교육 결핍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한 지역은 홍천, 인제, 고성, 양양, 태백, 삼척, 평창, 정선 등임

• 표 4-3 | 인구증감 특성에 따른 지역별 추진 시책 •

유형	해당 지역	추진 시책
인구주핵 지역	춘천, 원주, 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에서 외부로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담 역할 일자리 창출과 산업육성의 고용 기능 강화 강릉의 경우, 교육 경쟁력 강화 및 주택기능 강화 시책 개발 및 추진 필요
인구부핵 지역	속초, 동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의 2차 인구거점 역할 수행 필요 산업 및 고용기반 육성 시책 추진 속초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 기능 강화시책 추진 필요
인구 증가 지역	횡성, 화천, 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의 경우 주택 및 가족 요소의 결핍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 필요 화천의 경우도 직업 및 고용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 추진 필요 3 지역 중에서 산업 및 고용 시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은 양구
인구 감소 지역	홍천, 철원 인제, 고성 양양,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적으로 일자리 결핍 강화시책 추진 필요 교육 결핍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한 지역은 홍천, 인제, 고성, 양양, 태백, 삼척, 평창, 정선 등임

인구이동 요인에 의한 지역별 추진 시책

- 강원도 인구이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직업과 일자리, 가족, 교육, 주거환경 및 어메니티 등으로 나타남
 - 인구 과밀 지역인 수도권 등과는 달리 강원도에서 주택문제는 인구이동의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지 못함
-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요소는 해당 지역의 결핍 요소인데 이에 대응한 전략의 개발이 필요함
- 강원도 18개 시·군 지역 거의 모두에서 직업과 일자리 때문에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외 요소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강원도도 다른 시·도와 다르지 않게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고용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소이며, 그 다음은 주로 교육, 주거환경 및 어메니티 등임
- 따라서 먼저, 인구 유출요인에 따른 지역별 특화 대응 시책이 필요
 - 18개 시·군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 시책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부족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

• 표 4-4 | 인구증감 요인에 따른 지역별 추진시책 •

유형	추진 시책	해당 지역
직업· 일자리 강화 필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직업, 일자리를 강화하되, 지역의 특화 역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형성, 강화하는 시책 추진 • 가령 원주의 경우, 의료 및 공공기관 관련 일자리, 춘천은 행정기능 관련 일자리 등 • 인구감소 지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자원 특화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양호지역: 춘천, 원주, 강릉 (주로 타 시도로부터 인구유입 목표) • 기타지역
교육 강화 필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책은 소년과 대학 이상으로 구분해서 접근 • 청소년 이하의 교육 경쟁력 강화시책 추진 • 고교 대상 청소년 대상 교육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이하 교육 강화: 춘천, 원주, 강릉 제외
주거환경· 어메니티 강화 필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어메니티가 디지털, 그린 문명에서 핵심적 인구증가 요소로 부상함에 부응하는 시책 추진 • 인구유치 기반 어메니티 제공 시책 추진해서 지역 이미지, 인지도 향상 * 지역재생 등 시책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폐광지역

•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적 인구시책 사례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웃사촌 사업 추진 사례

- 의성군은 출산·보육 지원을 위한 '의성군 출산통합지원센터'와 일자리와 주거, 의료와 교육, 복지 및 문화 기반을 두루 갖춘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연계 조성
- 출산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들에게 장난감 대여와 놀이방, 체험교육 서비스 제공, 부모에게 임신과 출산, 보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2016년 행정안전부의 '뉴-베이비붐' 선도 지자체 선정 사업의 일환으로 안계면에 건립
 - 1,322㎡ 부지에 지상 2층 건물로 프로그램과 회의실, 아기 놀이방, 장난감대여소, 엄마쉼터 등의 시설 조성
-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지방소멸 극복 모델로서 유입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의료, 복지 등을 두루 갖춘 행복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 정보기술(IT) 시설을 갖춘 스마트팜에서 청년들이 농업을 배우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농부 사업 수행(29명의 청년 농부 유입)
 - 도시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한 청춘구 행복동 사업 수행(15명의 도시청년 유입)
 - 2022년까지 임대주택 140가구 조성 계획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중
- 의성군은 '인구 소멸 위험' 전국 1위 지역이었으나, 경북 23개 시·군 중 귀농 실적 1위를 차지하였고 함께 출산율 전국 3위를 차지

전남 구례군 자연드림파크

- 구례자연드림파크는 2014년 구례군이 조성한 농공단지애 아이쿱(iCOOP)생협을 유치하여 단순한 생산 및 물류시설이 아닌 6차산업 테마파크로 19개 공방 운영
 -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공방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숙박 및 주거시설, 한의원, 스포츠센터, 영화관 등 문화공간이 함께 조성
 - 자연드림파크 조성으로 2019년 기준 561명 고용창출과 약 990억 원 매출 발생, 12만 6,071명 방문
 - 가시적 효과는 고용인원 확충과 관광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구례영화제, 자연드림 락페스티벌, iCOOP 생협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 융성을 주도
 - 자립, 자조, 연대 등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장학사업, 이웃돕기, 지역고교 출신 채용, 산부인과 개설, 방과후 교실 지원, 장학금 및 해외 탐방 지원 등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물품전달, 지역 체육행사 지원 등을 통해 지역 환원을 통한 상생을 추진

18개 시군 지역 간 연계·협력 발전 시책 추진

- 인구이동 특성의 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강원도 인구이동 특성 중의 하나가 도내 3개 주핵의 경우, 인근 지역과 인구이동 연계가 강함
 - 춘천의 경우 홍천, 화천, 원주의 경우 횡성, 강릉의 경우 평창, 양양 등임
- 도 외 지역 간의 경우에도 인근지역과의 인구이동이 비교적 밀접함
 - 원주의 경우 충북, 강원도 동남권 지역의 경우 경북 등
- 도 내 중심도시와 인근 지역의 경우 중심도시로 인구집중을 방지, 상호 협력 발전
 - 춘천의 경우 홍천, 화천, 원주의 경우 횡성, 강릉의 경우 평창, 양양 등이 중심도시의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특화, 보완시책을 마련

원주의 경우 예시

- 원주의 의료복합, 건강 복지기능과 횡성의 우천산업단지 E-mobility 산업을 연계해서 건강·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E-mobility 산업을 장기적으로 육성하여 인구 균형 유지

- 인접한 타 시도와도 연계, 협력을 통해 인구이동 최소화 도모
 - 가령, 충북과 원주가 협력하여 인구 관점에서 지역이 협력적으로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추진

의료산업의 경우 예시

- 원주의 의료, 건강산업과 충북 제천의 한방산업의 연계, 협력적 공동 발전 시책 추진
 - 대표적 시책 사례 : EU의 인접지역 간 협력사업인 INTER-REG V

지역 인구 증가 관련 제도 추진 강화

- 도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한 18개 시·군에서 행정기관 관련 지역인재 채용 강화
 - 2020년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일자리 제공의 경우, 강원도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2020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18년에 도입되어 18%를 시작으로 매년 3%씩 증가, 22년 30%까지 달성이 목표
- 20년 전국 12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109개에서 4,129명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28.6%인 1,181명임
- 채용 비율은 24.3%에서 46.2%로 격차가 심하며, 세종 46.2%, 충북 40.1%, 대구 34.5%, 충남 34.2%, 제주 32.1%의 순이며, 경남 24.3%, 강원 26.4%, 광주전남 27.0%, 전북 28.3% 등을 보이고 있음

지역	채용기관	총인원	지역인재	비율	비고
세종	19	13	6	46.2	1
충북	10	62	25	40.3	2
대구	9	358	124	34.6	3
충남	2	158	54	34.2	4
부산	11	300	102	34	5
제주	3	28	9	32.1	6
울산	7	120	35	29.2	7
전북	6	348	98	28.2	8
경북	8	616	170	27.6	9
광주	13	1,280	346	27	10
강원	11	330	87	26.4	11
경남	10	518	126	24.3	12
전국	109	4,129	1,181	28.6	

자료 : 서울신문, 5.11일자

- 18개 시·군에서 행정기능 관련 일자리 지역인재 채용을 강화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경쟁력을 강화
 - 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보다 강화

통계기반 광역-기초 간 기능 분담에 의한 시책 추진

- 인구정책의 통계기반적, 분권적 추진
 - 첫째, 인구에 대한 데이터 및 통계적 기반 구축
 - 둘째, 인구정책에 대한 분권적, 협력적인 시책의 발굴 및 시행
 - 셋째,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분권적 추진
- 강원도청과 18개 시·군의 합리적인 기능 분담, 협력에 의한 인구 전략 개발 및 효율적 시책의 추진
 - 강원도청 : 18개 시·군이 해당 지역의 인구를 분석할 수 있는 프레임 및 틀 제공, 도청 및 시·군 인구정책의 밑그림 설계, 인구정책 기반 조성, 자원 지원 기반제공의 역할 추진
 - 18개 시·군 :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에 바탕을 둔 지역 고유의 시책 개발 및 추진

대표적인 통계기반 정책 사례(일본 RESAS)

- 지역이 산업, 인구, 사회인프라 등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역에 적절한 과제를 도출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분석시스템(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 RESAS)을 개발·제공
 - 목적 : 지역의 현상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모습을 객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을 지원
 - 메뉴 : 인구지도, 지역경제순환지도, 산업지도, 기업활동 지도, 소비지도, 관광지도, 마을만들기지도, 의료·복지지도, 지방재정지도 등 9개 메뉴를 개발·제공



- 18개 시·군은 해당 지역의 인구 특성, 강·약점, 시책 개발 및 추진
 - 해당 지역의 횡적·시계열적 인구 특성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해당 지역의 중장기적 인구정책 수립, 시책 개발 및 추진, 평가

• 표 4-5 | 통계기반의 광역-기초 분담에 의한 인구정책 추진 •

구분	내용	비고
강원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정책의 통계적 기반 구축 및 제공 * 일본: RESAS • 강원도 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 18개 시·군 인구정책 재원지원, 컨설팅, 평가 등 	중앙정부 인프라 지원
18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인구특성 분석 → 강약점, 문제점, 대응 방향 설정 • 해당 지역에 적합한 인구시책 수립, 자체평가 	인구 유출 최소화, 유입 강화 시책 추진

참고문헌

통계청(2020).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2020).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향조사.

통계청(각 년도). 주민등록인구(외국인 제외).

일본 지역경제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s://resas.go.jp/#/13/13101>).
